

19세기 후반 河回 ‘屏儒’의 家學과 斥邪 활동

김도형*

차례

- I. 머리말
- II. 家學의 계승과 世臣의 후손
- III. 屏虎是非와 儒疏運動
- IV. ‘병유’의 유교사회유지론과 척사운동
- V.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 후기, 풍산 류씨는 영남을 대표하는 문중이었다. 이들은 謙庵 柳雲龍과 西厓 柳成龍의 후예들로 퇴계학통 안에서 家學을 전수하면서 학맥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노론의 영남 남인에 대한 견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의 관료로 진출하였다. 영의정을 지낸 류성룡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그들은 ‘世臣’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그들의 가학이나 경세론, 처신론에서 큰 지침이 되었다. 그들은 이미 체계화된 퇴계학문을 도덕적,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학문에 더 힘을 기울였으며, ‘世臣’의 자손으로서 임금의 聖學, 聖化를 보필하는 일을 중시하였다.

19세기 후반, 대원군의 남인 등용 정책에 따라 柳厚祚가 좌의정에 올랐다. 이

*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후 '屏儒'를 위시한 영남 남인들은 주로 대원군과 그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물론 영남 남인 사이에는 '병호시비'에 따라 그 처신 여하에 차이가 있었다. 서원 철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하면서도 병유들은 다소 소극적이었고, 그 반대로 대원군 실권 후에 전개된 봉환 상소에는 적극적이었다. 또한 서양과 일본의 침략 앞에서 왕조를 지키려는 척사론은 견지하고 있었지만, 병유들은 정부의 근대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으며, 또한 『조선책략』을 반대하는 상소운동이나 의병항쟁에서 다소 소극적이었다. 게다가 虎儒 일각에서 일어난 계몽운동으로의 노선 전환 같은 극적인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모든 '처신'에 영향을 미친 것이 개인의 도덕적 실천을 중시하던 가학과 '세신의 후손'이라는 점이었다. 그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견 표명이나 집단 행동에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주제어

豊山 柳氏, 柳成龍, 柳厚祚, 世臣之孫, 屏虎是非, 屏儒,

I. 머리말

19세기에 들면서 조선사회는 왕조 체제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안으로는 흥경래 난, 1862년 농민항쟁, 1894년 농민전쟁 등으로 이어진 반봉건 농민항쟁으로, 또 밖으로는 西敎의 전래와 두 차례의 洋擾(병인양요, 신미양요),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1876) 등으로 이어진 서양, 일본의 침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체제 위기는 1860년대 대원군 집권기에 더 심화되었다. 대원군은 왕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였다. 집권 직전 정부에서 마련한 三政蠶整策을 재정비하여 농민층의 항쟁을 해결하고자 하

였고, 세도 정권을 억압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복궁 중건, 四色 등용, 서원 철폐 등도 실시하였다. 또한 유교이념과 체제를 위협하는 서학(천주교)을 탄압하고, 또 이를 빌미로 침략해온 프랑스, 미국과 싸워야 하였다.

체제 위기감은 정부에 몸담고 있거나[在朝] 혹은 지방에 있는[在野] 유생층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었다. 노론 집권층의 입장에서 18세기 후반부터 형성된 북학론을 계승하여, 차츰 서양의 기술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논의를 제기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재야 유생층은 국정교학인 주자학을 강화하고 서양을 배척하였다. 재야 유생층이 당시의 사회 변화 속에서 가졌던 이념은 철저한 주자학에 입각한 斥邪衛正論이었다. 본래 유교에서는 異端을 배격하고 正學을 숭배[闢異崇正]하고, 또 中華를 존중하고 夷狄를 배척[尊華攘夷]하는 원리를 기본으로 하였다. 이런 척사론은 당색, 학파의 연원에 관계없이 동일하였다. 특히 서양세력의 침략과 천주교의 보급, 그리고 '서양화'된 일본의 침투는 유교사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재야의 유생층은 자신의 척사론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의견을 내기도 하고, 또한 향촌사회에서 유교이념을 강화하고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썼다.¹⁾

그러나 성리철학의 측면이나 처신에서는 점차 영남과 기호, 혹은 노론과 남인이라는 당색의 구분이 벌어지고 있었고, 따라서 척사론을 공유

1) 18~19세기 이들의 학문적 특징 및 대응 활동은 권오영, 『조선 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 김도형, 『개항 이후 보수유림의 정치사상적 동향』, 『1894년 농민전쟁연구(3)』, 역사비평사, 1993. 이 가운데 19세기 후반 영남 유림의 동향은 정진영, 『19세기 후반 영남유림의 정치적 동향 : 만인소를 중심으로』, 『한말 영남 유학계의 동향』,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1998 참조.

하면서도 자신들의 학문적 연원이나 당색, 사회경제적 기반, 정권과의 연관성 등을 둘러싸고 현실문제에 대한 처신에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런 점은 향촌 사회에서 사족지배체제가 조금씩 변화되면서, 사족의 결속력도 당색, 학통보다는 소규모의 문인(학맥), 통훈과 집안(문중), 동족 부락 등으로 좁아지고 있었던 것²⁾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19세기 후반, 안동의 하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풍산 류씨의 사상적 동향과 대응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은 크게 柳雲龍(謙庵, 1539~1601)과 柳成龍(西厓, 1542~1607)의 후예들로, 대체로 퇴계학통 안에서 家學을 바탕으로 학맥을 형성하였다. 19세기 후반에는 상주 우천의 柳厚祚(洛坡, 1798~1876), 柳疇睦(溪堂, 1813~1872) 등이 정치, 학문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³⁾ 이들은 퇴계 학통의 계승 문제와 관련하여 학봉 김성일의 후예들과 이른바 ‘屏虎是非’로 대립하였으며, 병산 서원을 중심으로 결집된 ‘屏儒’, ‘屏派’로 칭해지고 있었다. 이들 문중은 영의정을 지낸 류성룡의 후예답게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의 관료로 진출하였으며, 고종 초기에는 柳厚祚가 좌의정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世臣’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가학을 계승하였다. 이는 19세기 후반의 격변기에 자신들이 처신하는 기준이 되었다. 재야의 유생들과 보조를 같이하면서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일반 재야유생층, 특히 안동의 ‘虎儒’들과 다른 대응을 하였다.

2) 金成潤, 「안동 남인의 정치적 일상과 지역정치 동향 - 철종대 金洙根서원 건립과 고종대 屏虎保合을 중심으로 -」, 『영남학』 15, 2009, 76~80쪽.

3) 이를 자세하게 다룬 것은 金命子,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9 참조.

II. 家學의 계승과 世臣의 후손

안동지역 유학의 宗匠은 退溪 李滉(1501~1570)이었다. 일반적으로 퇴계의 수많은 제자 가운데 학맥은 유명한 4명의 제자들에 의해 확산되었다고 한다. 즉 月川 趙穆(1524~1606), 鶴峯 金誠一(1538~1593), 西厓 柳成龍(1542~1607), 寒岡 鄭述(1543~1620)였다. 도산사원 尙德祠에 배향된 조목은 예안을 중심으로 봉화, 영주 지역에서 활동하였고, 정구는 성주, 인동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허목 등을 통하여 근기지방으로도 확산되었다. 안동 지역에서 형성된 김성일과 류성룡의 학맥은 조선조 말까지 계속 발전하였다.

풍산 류씨는 고려 말기 안동의 토호[戶長]에서 사족층으로 성장한 안동의 대표적인 가문이었다. 조선 중기 이래 안동에는 풍산 류씨, 안동 권씨 등의 土姓을 중심으로 14-17세기에 移居해온 의성 김씨, 진성 이씨, 전주 유씨 등이 사족지배체제를 형성하였다. 풍산 류씨는 柳仲郢(立巖, 1515~1573)과 그 아들 柳雲龍, 柳成龍 대에 이르러 안동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중으로 자리 잡았다. 16세기 이래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재상에 오른 류성룡, 류후조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과거나 음직을 통하여 중앙 정계에 꾸준히 진출하였고, 학문적으로도 퇴계의 학문을 계승한 대표적인 학파, 학맥을 형성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안동지역에서는 학통과 향촌사회 주도권 차원에서 후술할 '屏虎是非'도 일어났다.

조선 후기에 들면서 향촌사회의 변화에 따라 풍산 류씨도 문중 내부에서 분파가 일어났다. 19세기 말에 이르면 거주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몇몇의 '分派'가 형성되었고, 큰택인 '겸암파'에 속해 있던 '서애파'가 점차

분리되어 중심세력으로 인식되었으며, 그 가운데 서애 찰방공파가 주도하였다. 19세기 초반에는 호조참판을 지낸 柳台佐(鶴棲, 1763~1837)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고, 후반에는 재상의 반열에 오른 류후조의 상주 우친파도 부각되었다. 하지만 서애의 학맥은 ‘家學’으로 계승되면서 문중의 분화과 약간의 주도권 시비에도 불구하고 일계적인 학문 계승 관계로 파악하였다. 이런 점은 1911년, 柳膺睦이 지은 「家學淵源世系圖」에서 정리되었다.

우리 立巖[柳仲鄂] 府君께서 학문을 천명하여 자식을 가르치고 스승에게 나아가게 했고, 龜村[柳景深], 倦翁[柳贊], 巴山[柳仲淹] 여러 從弟와 함께 家學을 닦았다. 입암 부군이 謙庵[柳雲龍], 西厓[柳成龍] 두 부군에게 전하였고, 겸암 부군이 먼저 退溪의 문하에 나아가 편지로 장려를 받아 다른 사람이 얻기 어려운 바를 많이 얻었다. 서애 부군이 일찍이 퇴계 문하에 나아가니 "이 사람은 하늘이 태어나게 했다"는 칭찬이 있었는데, 博約하고 莊敬하여 마침내 그 도를 전하였다. 서애 부군이 한 번 전함에 修巖[柳紇] 부군이 있고, 두 번 전함에 拙齋[柳元之] 부군이 있으니 性理의 학에 조예가 깊다. 졸재 부군이 愚訥[柳宜河]에게 전하고, 梅堂[柳世哲], 寓軒[柳世鳴] 두 공이 졸재의 再從姪로서 그 문하에서 직접 배웠다. 우눌 부군은 主一齋[柳後章]에게 전하여 西湖[柳聖和], 花溪[柳聖曾], 懶翁[柳澣], 臨汝齋[柳汧], 畏齋[柳宗春], 江阜[柳尋春], 鶴棲[柳台佐] 등 諸公에 이르기까지 상하 10世 안에 가학의 진수가 차례대로 한 세대도 간격이 없었다.⁴⁾

라고 하였다. 풍산 류씨의 가학은 입암 류중영의 학문 활동부터 시작되어, 서애와 겸암을 거쳐 18세기 말에 한 세대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다는 것이었다.

4) 柳膺睦, 「家學淵源錄」, 발문(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 『鶴山文集』 권7, 「家學淵源世系圖錄跋」(二, 6~7쪽). 이 글을 쓴 류응목도 상주 류주목의 제자로, 가학을 이어갔다.

가학으로 계승한 학맥은 안동 하회와 상주 우천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하회에서는 류원지 - 류의하 - 류후장 - 류규 - 류이좌 - 류도휘 등으로 이어졌고, 상주 지역에서는 류성룡이 상주목사 시절의 제자였던 정경세의 후손들과 함께 발전되었다. 정경세는 “陶山 再傳의 嫡統”으로 지칭될 정도의 학자로, 그의 학문은 상주로 이사한 류성룡의 셋째 아들 柳彬에게 계승되었고, 류진의 학문은 그의 사위이자 정경세의 손자인 정도응에게 이어졌으며, 후에 류심춘은 정경세의 6세손인 정종로 문하에서 배웠다. 그러면서도 그 가학의 학풍은 류심춘 - 류후조 - 류주목 - 류도수 등으로 이어졌다.⁵⁾

한편, 겸암, 서애의 학맥이 가학으로 계승되면서, 동시에 영남의 어느 문중보다 활발하게 중앙 정계에 진출하였다. 특히 류성룡이 영의정을 지낸 후 거의 2백 6십년 만에 류후조가 좌의정에 올랐다. 여타의 영남 남인에게는 없었던 일이었다. 그 동안에도 당상관이 된 사람도 柳台佐(참판), 柳相祚(판서), 柳進翰(동부승지), 柳光睦(공조참의), 柳道彙(승지) 등이었다. 이 문중의 겸암파와 서애파의 분파와 出仕 경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

5) 『溪堂集』 권16, 「王考江臯府君家狀」(三, 412~413쪽). 우인수, 「溪堂 柳疇陸과 閩山 柳道洙의 학통과 그 역사적 위상」, 『退溪學과 韓國文化』 44, 2009, 14쪽. 우인수는 학봉이나 한강 학파와 구분되는 서애학과 학통을 특징을 ①가학으로 이어진 경향, ② 풍산 류씨와 진양 정씨의 교차, ③사승관계가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 있음, ④안동의 서남쪽 지역 분포, ⑤정승가로서의 현실대응, 자세의 약간의 차이 등으로 정리하였다(14~16쪽). 류주목 문하에 류도수(의성 사촌)를 비롯하여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었는데, 이후 상소, 의병 등으로 활약했던 金輝鎭(영천), 李晩胤(예안), 權述鳳(안동), 許薰(垞村), 李晩應(예안) 등이 있으며, 풍산 문중 사람으로는 柳道獻, 柳道龜(하회), 柳寅睦, 柳道奭(우천) 등이 있었다(『溪堂集』 부록 「及門錄」 참조).

6) 金命子, 앞의 글, 2009, 54~61쪽.

겸암파, 서애파의 분화와 과거급제자 및 음사자

분과		지역	문과	사마시	음사
謙巖	察訪公派	하회		6	5
	狼川公派	하회	2	5	2
	敎官公派	하회, 佳丘, 義城 沙村	1		1
西厓	察訪公派	하회	10	26	16
	生物派	상주 生物		1	
	愚川派	상주 愚川	2	6	5
	柳川派	예천 柳川, 문경 存道		1	1
	謙謹齋派	예천, 군위			

풍산 류씨들의 정치 활동은 줄곧 서울에 있는 남인, 곧 '京南'과 연결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북인이 몰락하면서 잔여 세력은 대개 이황 계통의 남인으로 집결되었는데, 안동을 정점으로 한 영남의 남인[嶺南]을 이루었으며, 서울을 근거로 한 남인 '京南'으로 포진하였다. 숙종 때 갑술환국(1694)으로 정계에서 퇴출된 남인들은 주로 향촌지배세력으로 만족하였다. 재지주로서의 경제적 활동은 물론, 향약이나 서원 등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였고, 이런 정치적 처지 속에서 퇴계학맥은 내부 결속이 강한 편이었다.

영남 남인의 중앙 정계 진출은 대개 노론 세력을 견제 혹은 억제하는 국면에서 활용되었다. 류성룡의 후예들도 그러하였다. 정조대에 '탕평'의 이념 하에 남인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영의정 蔡濟恭이 류이좌 등을 천거하였으며, 순조 대에 채제공이 삭탈관직 당하자 영남에서 채제공의 신원

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를 처음으로 거론한 곳도 병산서원이었다(1818). 체제공이 1823년에 신원되자 그의 문집을 간행하는 일도 류이좌 등 병유가 앞장섰다.⁷⁾

우천과의 류후조가 좌의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중앙 정계의 변동 때문이었다. 영남의 남인을 등용한 것은 노론을 누르고 '四色'을 기용한 대원군 정치의 결과였다. 대원군은 왕실 재건, 왕권 강화를 위해 세도정치의 노론 세력을 억압하고자 하였다. 경복궁 중건, 서원철폐, 토호 정치, 속대전 편찬, 삼정 문제의 해결(양전, 호포제, 사창제 등) 등은 시책이 모두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류후조는 이조참판, 공조판서, 우의정 등을 거쳐 좌의정이 되면서 대원군 초기의 핵심적인 정책 추진에 동참하였다. 이런 점에서 대원군은 영남 남인의 든든한 정치적 후원자였다. 1871년 대원군을 지지하는 儒疏를 屏儒들이 주도한 것도 이런 연관 때문이었다.

한편, 영조 조 이래, '영남'의 오랜 과제는 이인좌의 난(戊申亂, 1728, 영조 4년)에서 비롯된 '멍에'를 벗는 일이었다. 소론세력이 주도한 이인좌 난에 경상우도 지역의 남인들이 가담하고 있었으므로, 영남이 '반역항'으로 인식되자 안동의 남인들은 그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안동지역에서는 난이 일어나자 관군 편에서 '의병'을 조직하여 동참하였다.⁸⁾ 안동지역의 퇴계학파는 이인좌의 난과 연관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이런 점은 꾸준히 중앙 정계에 진출하고

7) 병유의 '京南'과의 관련 및 蔡濟恭의 伸冤, 문집 간행 등에 대해서는 金命子, 위의 글, 2009, 194~208쪽. 당시 이미 안동 지역은 병호시비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런 일들은 병유가 주도하였으며, 호유 측에서는 비협조적이었다.

8) 李樹健, 「17, 18世紀 安東地方 儒林의 政治社會的 動向」, 『大丘史學』 30, 1986, 208~211쪽.

있던 풍산 류씨에게 더 큰 문제였다. 그리하여 난이 끝난 지 150년이 지난 다음에도 중요한 사안으로 추진되었다. 1874년 류후조는 무신 난 때, 의병을 일으킨 대장 柳升鉉, 부대장 權萬의 창의 사실을 정리한 『戊申倡義錄』을 간행하였다. 류후조는 “우리 영남은 본래부터 鄒魯의 고장으로 일컬어 윗사람을 존경하고 어른을 위하여 죽는 의리를 더욱 중하게 여겨왔다.(...) 무신 난에 영남의 父老들이 모두 발분강개하고 격문을 돌려 나라를 위해 의병을 일으키니 불과 열흘 만에 십 수개 군이 같이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⁹⁾

한편 노론 정권에서도 줄곧 영남 남인을 제어하는데 노력하였다. 난을 진압하고는 1744년(영조 20)에는 경상감사 황선을 찬양하는 ‘平嶺南碑’를 경상감영 남문 앞에, 1784년(정조 8)에는 성주목사 이보혁의 공적을 찬양하는 ‘星山紀功碑’를 성주 읍내에 세웠으며, 1788년(정조 12)에는 합천 지역에 ‘戊申平難事蹟碑’를 세웠다. 그러면서 경상좌도와 우도를 나누어, 안동지역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영남’의 중심지인 안동이나 성주 지역에 노론 세력을 부식하고자 하였다.¹⁰⁾

9) 『洛坡先生文集』 『戊申倡義錄序』(柳時濬 撰, 1995, 418쪽). 정조는 의병장 두 사람에게 관작을 내리고 관찰사에게 각 고을의 창의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관찰사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에 李鎭東이 분개하여 각 고을 창의록을 수집하여 한 권의 책을 만들고, 여기에 안무사, 호소사가 올린 啓辭를 붙여 임금에게 올렸다. 정조는 대신의 논의를 거쳐 그 책을 경상도에서 간행하라고 하였으나 이 또한 이때 간행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80년이나 지난 후에 류후조가 『戊申倡義錄』으로 간행하게 되었다. 핵심이 되는 『慶尙道戊申倡義事蹟』에는 안동, 상주, 예천 등 13개 지역의 창의사적이 수록되어 있으며, 각 지방 의병의 조직 상황, 활동 절목, 의병의 조직과정과 난의 경과를 기록한 일기, 의병조직에 참여를 호소하는 通文, 檄文 등이 정리되어 있다.

10) 이수건, 앞의 글, 1986, 208쪽. 성주에는 이미 1712년(숙종 38)에 노론은 송시열을 모신 노강서원을 성주 주변(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에 세워, 남인을 누르고 노론 세

안동지역에도 노론계 서원 건립이 추진되었다. 이인좌의 난 직후인 1738(영조 14)년에 안동의 法尙洞에 金尙憲 서원을 건립하고자 하였다.¹¹⁾ 그리고 1855년에는 안동 김씨의 핵심 인물로 안동부사를 지낸 바 있던 金洙根을 배향하는 서원(西湖書院)을 건립하고자 하였다. 서호서원 건립을 추진한 사람은 중앙 정계와 깊은 관련이 있던 병과 계열의 하회의 柳祈穆(류이좌의 아들)과 오미동의 金重休 등이었다. 서원 건립이 지역 유림의 반발로 무산되자 류기목은 김수근의 동생인 永恩君 金汶根의 영정을 언양에 봉안하는 일이나(1858), 이듬해 예안현감으로 김수근의 位版을 예안 雲溪書院에 배향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였다.¹²⁾

이와 같이 풍산 류씨의 屏儒들은 중앙의 정계에서 활동하면서 노론 세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었다. 병유들은 물론 당색을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다른 영남의 학파나 문중에 비해 당색의 굴레가 좀 덜한 편으로 보인다. 가령 류후조의 아들 류주목은 「朝塾約全」이라는 당쟁서를 편찬하였는데, 그는 남인의 입장보다는 여러 계통의 당쟁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려고 노력하였다. 당쟁론이 주로 노론, 서인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 많았으므로 이를 수록하면서도 동시에 공정성을 위하여 남하정의 「桐巢漫錄」과 황덕길의 「朝野信筆」 등 남인 기록도 포함시켰다. 또한 류주목은

력을 부식하고자 하였다.

- 11) 鄭萬祚, 「英祖 14년의 안동 金尙憲書院 建立 是非」, 『韓國學研究』 1, 동덕여대, 1982. ; 이수진, 앞의 글. 이는 노론의 공세에 대해 소론 및 남인이 강하게 저항한 것이었고, 안동 지역에서는 향전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노론의 시도는 영조 때에는 성사되지 못하고 후에 정조 10년(1786)에 남인이 정계에 등용되면서 西礪祠로 사액되었다.
- 12) 『羅巖隨錄』, 「河柳氏與美金氏相持」, 24쪽. 김성윤, 앞의 글, 2009. 이는 후술할 병호 시비와 연관되면서 더욱 논란이 심해졌다.

이황과 기대승 사이에 일어난 사단칠정 논쟁과 그 이후 이에 관해 진행된 자료를 정리하면서, 퇴계학과와 율곡학과, 그리고 영남 안에서는 병과와 호파를 가리지 않고 인용하여 실었다.¹³⁾

병유들이 학문이나 정치활동에서 고민했던 문제는 오히려 家學의 계승이었다.¹⁴⁾ 그들은 영의정을 지낸 서애의 후손으로 줄곧 관직에 나아갔다는 ‘世臣’, ‘世祿之臣’의 후손이라는 점을 항상 강조하였다. 일찍 류진이 류원지에게 “우리 집안은 世臣이므로 山野로 자처하면서 僂蹇[거드름을 피우며 거만함]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도 마땅히 이를 알아야 한다”고 한 점이였다.¹⁵⁾ 이는 후손들이 항상 명심하며 거론하던 지침이었다. 이런 점에서 병류들은 당시 다른 ‘영남’ 유생층과는 처신에서 달랐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병유들은 학문적으로 퇴계학통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심화 연구하기보다는 도덕적 실천과 현실적 실현에 더 힘을 기울였다. 퇴계에 의해 성리학이 이론적으로 완결되었으므로 다시 여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 『小學』과 『心經附註』 공부를 중시하고, 사회적 현실적 실현을 위해 禮學에 깊은 관심을 보였

13) 홍원식, 「서애학과와 계당 유주목의 성리설」, 『退溪學과 韓國文化』 44, 2009, 39-40쪽. 물론 율곡학과와 호파의 인물과 자료가 조금 소홀하게 수집되었지만, 이것 때문에 “편파적 관점에 따른 것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이런 점으로 서애학파의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퇴계학을 잇고 있지만, 퇴계학과 율곡학의 극단적인 대립을 보였던 호파의 이현일의 성리설에 비해 절충적이었다고 보았다.

14) 가학의 형성 및 계승에 대해서는 김학수, 「17세기 서애 류성룡가의 학풍과 그 계승양상」, 『퇴계학과 한국문화』 55, 2014. 전반적으로 조선 후기에 가면서 당시 주자학의 학풍과 관련해서, 주자학이 강화되고 서애에서 강조된 경세론은 약화되어 갔으며, 心學, 放心, 易圖 그리고 讀書法과 토론 문화 등을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15) 『修巖集』 권2, 부록 「遺事」; 『溪堂集』 부록 권1, 「行狀」(柳道洙 狀 七, 24쪽); 우인수, 「溪堂 柳疇睦과 閩山 柳道洙의 학통과 그 역사적 위상」, 『退溪學과 韓國文化』 44, 2009, 18쪽.

다. 이런 점은 특히 우친과의 류심춘 - 류후조 - 류주목 - 류도수의 학통에서 명확하게 보였다.¹⁶⁾

류심춘은 류성룡 이래의 가학의 전통 위에서 理氣心性보다는 일상 현실 속에서의 '敬' 공부를 통한 마음의 다스림을 강조하였다. 1830년 세자 교육에 필요한 「東宮輔翼篇」을 지으면서, 세자를 보익하는 道는 『소학』이라고 하였다.¹⁷⁾ 류후조의 아들이었던 류주목은 조부 류심춘 아래에서 공부하였는데, 그도 학문의 목표는 “日用的 실천”이라고 하면서,¹⁸⁾ 특히 『소학』의 중요성을

『小學』은 비록 어린 아이들이 읽는 책이지만 『大學』의 근본이다. 주자는 이 책을 사람의 모양을 만드는 책이라고 말하였고, 寒暄堂 金宏弼 선생은 항상 소학을 表章으로 하여 小學童子라 하였다. (...) 선비가 五倫을 밝히고 百行을 돈독하게 하는 것으로 小學만한 것이 없다. 소학을 익히지 않으면 사람을 만들 수 없고, 소학을 읽지 않으면 대학을 읽을 수 없다. 집에 거할 때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일, 밖에 나가서 스승을 높이고 벗과 친밀하게 지내는 일, 조정에서 임금을 바르게 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끼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나온다.¹⁹⁾

16) 이형성, 「江阜 柳尋春의 生涯와 思想」, 『退溪學과 儒敎文化』 50, 2012 ; 姜文植, 「溪堂 柳疇睦의 敎育활동」, 『退溪學과 儒敎文化』 50, 2012 ; 홍원식, 「서애학과와 계당 유주목의 성리설」, 『退溪學과 韓國文化』 44, 2009. 그동안 한국유학사를 정리한 논저 사이에서 우친과의 학문을 '절충파'로 분류하는 것도 이런 연유로 분석하였다. 이런 점은 철저한 주리를 견지한 虎派와 대비된다고 하였다(홍원식, 34쪽).

17) 류심춘의 학문에 대해서 이형성, 위의 글, 2012.

18) 『溪堂集』 부록 권1, 「行狀」(柳道洙 狀. 七, 33~34쪽)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日用的 일상적인 행동에 진력해야 하고, 강론과 저술에 유의해야 한다” 혹은 “선비는 마땅히 仁民과 愛物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며, 이런 마음이 없다면 백성을 감쌀 위치에 있고, 물건에 미칠 만한 힘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베풀고 구하려는 뜻이 있다면 반드시 日用 行事 사이에서 생각해야 한다” 등으로 정리하였다.

19) 『溪堂集』 권11, 「溪亭講會節目」(二, 416~417쪽). 류주목의 교육론에 대해서는 姜文

라고 하였다. 임금이나 동궁에게 필요한 『대학』도 바로 이 소학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世臣之孫’으로 병유들은 무엇보다도 임금의 聖學, 聖化를 보필하는 일을 중시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정리하였다. 1866년 류후조가 우의정이 되자 그의 족손이자 류주목의 제자였던 柳道洙는 역대 중국 정승의 공과를 분석한 『相鑑博議』라는 글을 지어 류후조에게 바쳤다. 그는 그 서문에서 “임금은 재상의 재능을 論定하는 것을 직무로 삼고 재상은 임금을 바로 잡아주는 것으로 직무로 삼아야 한다”는 주자의 말을 인용하고,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은 임금이 바른 데 있고, 임금을 바로 잡는 직에 있는 사람(재상)이 大人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²⁰⁾ 또한 류도수는 『소학』을 바탕으로 임금의 정치를 위해서는 『대학』이 중요하다고 하였다.²¹⁾ 또한 류후조도 임금에게 ‘학문에 힘쓰는 것이 임금의 근본’임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다.²²⁾ 류주목이 예론에 관해 많은 연구를 행한 것도 이런 차원이었다.²³⁾ 그는 예론에 관한 글을 모아 『全禮類輯』을 저술하였는데, 이 책으로 禮家의 원천이 되었다고 평가되었다.²⁴⁾

植, 앞의 글, 2012 참조.

- 20) 『閩山集』 권6, 「相鑑博議序」(一, 416쪽, 418쪽) 류도수는 『相鑑博議』를 지어 류주목에게 주자 류주목이 무릎을 치면서 칭찬하고 相公(류후조)에게 드려 輔弼의 자료로 삼게 하였다고 하였다(『閩山集』 권8, 「行狀」, 524쪽).
- 21) 『閩山遺稿』, 『北薦芹曝錄』, 「擬上大學圖請進講大學疏」. 류도수는 후술할 ‘대원군봉환소’로 길주로 귀양을 가는 길에서 大學圖를 임금에게 올리고 「대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임금을 보필하겠다는 ‘가학’의 정신을 그대로 보이는 것이었다.
- 22) 『洛坡先生文集』, 「陳勉聖學啓辭」 정묘(1867) 정월 15일 등.
- 23) 홍원식, 「서애학과와 계당 유주목의 성리설」, 『퇴계학과 한국문화』 44. 이런 점 때문에 정경세 이래의 우천파의 학문을 ‘예학과’로 분류하게 된다고 소개하였다.
- 24) 후학들은 계당의 『全禮類輯』의 조속한 간행을 위해 안동 지역 유생들의 도움을 호

Ⅲ. 屏虎是非와 儒疏運動

1. 屏虎是非

세기에 영남 남인 사이에 제기되었던 '병호시비'는 당시 안동 사족 층의 '향권'의 추이는 물론 대원군 집권과 관련해서는 중앙 정계의 동향에도 영향을 끼친 중대한 난제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시비는 영남학과 내부의 학문적 적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퇴계의 학맥을 계승한 류성룡, 김성일 가운데 누가 더 嫡傳인가라는 문제였다.

17세기 이래 안동 지역의 퇴계학맥은 서애계와 학봉계가 주도하였다. 처음에는 수적으로나 정치적 영향력으로나 서애계가 주도하였다. 도산서원에 퇴계와 더불어 趙穆 만이 배향되자 안동의 퇴계학인들은 류성룡과 김성일을 배향할 서원을 건립하고자 하여, 퇴계가 공부하던 백련사 절터에 廬江서원을 건립하였다(1620). 이 서원은 1676년에 虎溪書院으로 사액되었다. 그런데 퇴계를 주향으로 하고 다음으로 중향할 학봉과 서애의 순서가 문제가 되었다. 나이는 학봉이 많으나 벼슬은 서애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일어난 논란은 “도산 재전의 적통”이라는 정경세(愚伏, 1563-1633)가 “나이에서 서애가 4살 적어 肩隨에 미치지 못하지만 벼슬의 차이는 絕席에 해당하니 아마도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라고 정리하였다. 정경세의 위상으로 서애, 학봉 순으로 하는 것에 별다른 이의가 일어

소하였다. 즉 1899년 7월 20일에 尙州鄉校 명의로 公事員 李時馨 등 44명이 도산서원에 통문을 보내, 溪堂의 저술을 판각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道會(軍威南溪壇下)에 도산서원도 참석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판각작업이 연기되는 것은 “賢人을 높이고 禮義를 중시하는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지 않았지만, 이 문제는 안으로 잠복해 있었다.

18세기에 들면서 학봉계열의 학문적 위상과 역할이 증대하였다. 이현일이 학풍을 진작하면서 그러하였다. 학봉의 제자였던 장홍효의 외손인 이현일의 아래로 외손 이상정, 또 이상정의 외증손 류치명으로 학문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정재학과라는 큰 학맥을 이루었다. 류치명은 특히 이상정의 학문을 이상정이 살았던 안동 蘇湖里를 본 따 “湖學”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退湖學’으로 정립하였다. 그러면서 학봉계에서는 김성일이 퇴계의嫡傳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즉 퇴계가 心法의 要言 旨訣(「屏銘」)을 김성일에게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²⁵⁾

학문적으로 확산된 학봉계는 다시 학통 문제를 들고 나왔다. 1805(순조 5)년에 안동, 영남 유림은 서애, 학봉, 한강(정구), 여헌(장현광) 등 영남 4현을 문묘에 陞廡해 주기를 청원하였다. 그런데 상소 속에 이름을 나열하는 순서가 문제가 되었다. 서애계는 호계서원의 순서가 ‘厓鶴’(서애가 동쪽, 학봉이 서쪽)이므로, 상소에도 이 순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학봉계는 나이 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듬해 안동 외 다른 지역의 유생들도 文廟 陞廡를 추진하게 되자 안동 유림들은 호계서원에서 향회를 열고 통문을 작성하였는데, 다시 통문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이런 내부의 분란 속에서 이들의 문묘 중사도 좌절되었다.

이 시비는 1812년, 여강서원에 大山 李象靖을 추향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또 불거졌다. 병과는 이상정의 위패를 모시려면 원래 있던 위판을 옮겨야 하므로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서애의 위패가 옮겨졌다는 ‘廟位遷動’ 문제가 제기되면서 병호 사이의 골은 더욱 더 깊어졌다. 이로 인

25) 권오영, 앞의 책, 2003, 304~305쪽.

해 마침내 병산서원 쪽에서는 호계서원과 절연하였다. 이런 시비 속에서 양 파는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여, 병파에서는 『廬江志』, 호파에서는 「廬江顛末」를 작성하였다. 또 『대산실기』에서 이상정을 “퇴계 이후 제 1인”이라고 하면서, ‘匡學’, 곧 류성룡은 선생으로 할 수 없다고 기술하여 그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다(1845). 그 후에도 류치명이 「갈암선생신도비」에서 퇴계 - 학봉 - 갈암으로 학통을 정리하면서 또 다시 문제가 되었다. 호파 쪽에서는 퇴계 - 학봉의 도통을 세워 나가면서 학맥의 결속을 다지면서 밖으로 병파와 적통 문제를 더욱 격화시켜 갔다.²⁶⁾ 이는 안동 지역 향촌 사회의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이면서, 동시에 당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되었다.

그리하여 퇴계 적통 문제를 둘러싸고 안동 유림은 이른바 ‘屏派’와 ‘虎派’로 양분되었다. 병파는 풍산 류, 진주 정, 진주 강, 풍산 김, 순천 김, 안동 김, 순흥 안, 진주 정 등으로, 병산서원과 상주의 도남서원이 중심으로 상주, 영주, 예천 등 안동의 서부지역 유생들로 이루어졌다.²⁷⁾ 호파는 의성 김, 전주 류, 한산 이 등으로, 호계서원이 중심지였다. 그 외는 같은 성관이라도 내부에 그 입장이 다르기도 하였다. 특히 퇴계의 후손인 진성이씨는 중립을 취했지만, 분파에 따라서는 병파와 호파로 나누어졌다.²⁸⁾

이 대립으로 영남 남인의 힘은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남인 세력을 등용하여 노론을 억제하려던 대원군에게도 크게 불리하였으므로, 그

26) 이상호, 「정재학과 성리학의 지역적 전개양상과 사상적 특성」, 『국학연구』 15, 2009.

27) 하회 문중의 통혼권, 학문적 교류도 이와 같아졌다(金命子, 앞의 글, 2009, 228~230쪽).

28) 韓相祐, 「조선후기 鄉戰을 통해본 양반층의 親族, 婚姻 - 안동의 屏虎是非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81, 2013. 병호시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차원의 혼인 관계는 유지되는 측면도 있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시비를 保合하고자 노력하였다. 때로는 대원군이 직접 나서기도 하였고, 때로는 재상으로 기용된 병과의 류후조나 고위직의 호파 관료를 동원하기도 하였다.

대원군은 1866년, 안동부사 沈東臣에게 병과, 호파의 보합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런 후에 1870년에 대원군은 안동부사에게 이를 다시 지시하였다. 이에 병호 두과의 유생들이 호계서원에 모여 보합의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때에도 쉽게 보합되지 못했다. 성과가 없자 화가 난 대원군은 이를 충역의 기준으로 논단하겠다고 하였다. 대원군은 병과의 강고한 입장 고수 때문에 보합이 되지 않는다고 파악하였다.²⁹⁾ 대원군은 류후조가 보합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이런 사정 속에서 류후조는 대원군에게 편지를 보내

근일에 안동부사가 병산서원에 내릴 帖紙를 보니 병호 양서원에 소속된 문중 유생이 금월 27일에 호계서원에 모이게 되는 바, 관청에서도 그때 참석한다고 일렀습니다. (...) 지난 병인년 봄 내가 병산 호계 양쪽이 보합한 사실을 전달한 바 있어 閣下께서도 역시 유념하신 것이 있으시어, (...) 소생이 비록 병산서원 쪽 사람이오나 보합하는 일에 있어서는 참으로 많은 고심을 하였으니 어디까지나 사심 아닌 공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 제가 어찌 감히 사사로운 욕심으로 호계 쪽을 욕되게 하겠으며, 또 어찌 감히 사사로운 욕심으로 閣下에게 바라겠습니까? 합하께서는 똑같이 보시어 한 쪽을 두둔하여 승리를 안겨주고 한 쪽을 억제하여 굴복토록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이기게 하고, 어느 한쪽을 굴복토록 하지 않아야만 앞날

29) 대원군은 보합이 되지 않는 이유를 병론이 밖으로는 뜻에 따르지만, 속으로는 이기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羅巖隨錄』, 50. 「雲峴宮抵崔判書書」, 51. 「雲宮下花伯書」, 79~80쪽).

의 화평을 점칠 수 있습니다.³⁰⁾

라고 하였다.

대원군의 명으로 병호시비는 겉으로 어느 정도 보합되었다. 1870년 12월에 병호 각각의 입장을 강조한 『대산실기』와 『여강지』를 대구 감영 관청 뜰에서 破板하였으며, 이 후에는 외견상 별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³¹⁾ 그러나 이 보합 문제는 곧 이어 터진 대원군의 서원 철폐, 대원군 봉환 문제 등으로 다시 표출되었다.

또한 1883년에 다시 호파를 중심으로 영남 4현 문묘 승무를 추진하면서 서원 복설을 들고 나왔다. 김도화는 '屏銘'을 거론하고 김성일이 퇴계의 '嫡統'이라는 점과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 활동과 '文忠'의 시호를 거론하면서 문묘에 승무해 주기를 청하였다.³²⁾ 그러자 병과 쪽에서는 서애가 "도산의 적전을 이어 백세의 宗師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단독으로 류성룡의 문묘중사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기로 하였다. 이에 진사 이재철 등이 상소를 올렸다.

우리 조정도 治教가 아름답고 밝아서 儒賢들이 배출되었는데, 영남은 본래 鄒魯로 일컬어져서 군자가 온 나라에서 많았으며, 문묘에 배향된 자가 계속 이어졌고, 先正한 文純公 李滉은 海東夫子라고 일컬어지기까지 했습니다. 儒化가 크게 드러나고 德教가 더욱 밝아져서 당시에 先正 臣 文忠公 柳成龍

30) 『洛坡先生文集』 「上大院君別紙」 庚午, 34~35쪽

31) 『羅巖隨錄』, 13쪽. 이듬해 류후조가 대원군에게 "병산 호계 양서원의 보합에 관한 일은 보합한 뒤로 별다른 일이 없으며 이미 명령을 받들어 보합하였으니 누가 감히 장차 떠들겠습니까. 연소한 무리들이 제각기 하는 말은 불과 그 때의 일이었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洛坡先生文集』 「上雲峴宮書 別紙」, 36쪽).

32) 『拓菴集』 권3, 「請鶴峯先生陸無疏」.

같은 분이 있어 직접 가르침을 받아 道統의 正嫡을 계승하였으니, 그의 학문이 諄諒하고 문장이 심오하고 사업이 빛나는 것은 竹帛에 기록되고 鼎彝에 새겨져서 사람들이 모두 잘 알고 있으니, 실로 聖代의 王佐요 百世의 儒宗입니다. 聖廟에 從享하자는 의논이 여러 차례 선비들에게서 나와서 수백여 년이 되었으니 후학이 울분을 품은 것이 어찌 끝이 있겠으며, 昭代의 결점이 되는 일이 또한 어떠하겠습니까.³³⁾

라고 하였다. 이런 상소는 뒤에도 이어졌다.³⁴⁾ 류성룡이 퇴계의 적통으로, 나라에 공도 많고, 제자도 많고, 또 학문도 뛰어나다는 점을 들어 문묘 중사를 청하였다.

병호시비로 인한 병파와 호파의 대립은 19세기 말엽까지 해결되지 않고 격화되어 갔다. 이 대립은 앞서 본 노론계 서원 건립과 영정 봉안 문제, 그리고 후술할 서원 훼손 문제와 결합되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특히 전자의 문제와 연관되어 일어난 것이 臨川事變(臨川鼓變)이었다. 서원 건립을 병호보합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논의도 있었으나, 서원 건립에 향중의 여론은 그렇지 않았다. 서원 건립에 대한 반발은 하회 내부에서도 제기되었다. 급기야 퇴계의 종손인 李彙寧이 옷이 벗겨지는 변을 당하였다. 이휘녕은 영정을 봉안할 봉안문을 작성한 바 있었는데, 그가 임천서원에 참석했다가 봉변을 당하고, 그 분을 풀기 위해 복을 울리고 이름을 거론하게 되었던 것이다. 가해를 한 사람은 예천의 권씨들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金溪의 학봉 후손들이라고 지목되었다. 이 사변의 핵

33) 『承政院日記』 고종 20년 10월 12일.

34) 『承政院日記』 고종 25년 4월 17일. 송태인 등의 상소에서도 “모두 陶山의 心學은 문충공이 전해 받았다고 여기고 있으니, 백세토록 전해져서 오래되어도 폐단이 없다는 말이 참으로 的實한 말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심은 병과 속한 그가 병호시비를 보합하려던 것에 대한 호파의 반발이었다고 할 것이다.³⁵⁾

2. 유소운동

1) 서원훼철 반대 운동

대원군 정치의 핵심은 추락된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나아가 왕조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었고, 이에 대원군은 노론 세도 정권을 억압하면서, 각 지방의 토호 懲治 및 서원을 훼철하였다. 서원 훼철을 위해 대원군은 집권 첫 해부터 壘設되거나 私設된 서원과 사당을 일괄적으로 조사하였고, 이듬해(1865) 3월에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던 萬東廟를 철폐하였다. 많은 반대에도 대원군의 시험 정책이 성과를 거두자 다음 수순으로 1868년(고종 5년)에 미사액서원, 향현사를 철폐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871년, 사액서원이라도 문묘중향인, 忠節大義之人을 배향하는 47개 원사를 제외한 모든 원사를 훼철하도록 하였다.³⁶⁾

안동지역의 원사는 1868년 대원군의 명령에 의해 대개 훼철되었다. 이때 살아남은 것은 호계서원, 삼계서원, 주계서원, 병산서원, 西澗祠 등이었다. 그러다가 1871년 4월에 들어 예안의 도산서원과 안동 하회의 병

35) '임친고변' 문제는 퇴계의 위상과 관련되면서 안동, 예안 향중에서 매우 큰 논란과 공방이 일어났다. 또한 서원 건립을 추진하던 하회의 류씨와 미동의 김씨 사이에도 책임 공방 속에서 절친했던 사이를 깨고 절교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羅巖隨錄』, 24쪽, 54~60쪽 ; 金成潤, 「안동 남인의 정치적 일상과 지역정치 동향 - 철종대 金洙根서원 건립과 고종대 屏虎保습을 중심으로 -」, 『영남학』 15, 2009, 58~64쪽.

36) 김병우, 『대원군의 통치정책』, 혜안, 2006, 244~307쪽 ; 이수환, 「대원군의 서원훼철 반대와 영남 유소」, 『교남사학』 6, 영남대, 1994.

산서원을 제외하고 모두 훼손되었다. 이에 당연히 유생들의 광범한 반대 상소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안동 지역의 경우에는 병호시비와 연결되어, 훼손되지 않은 병산서원 쪽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1868년 서원 철폐 문제가 제기되어 나오자 각 문중이나 학파에서는 이를 피하거나 혹은 항의하였다. 2월에 호파 쪽에서 안동에서 典祀 문제로 道會를 열었고,³⁷⁾ 이듬해 훼손된 이후에도 안동 지역 청년 유생들이 魯林書院에 大同道會를 열기 위한 통문을 발하기도 하였다.³⁸⁾ 병산서원 쪽에서는 류후조가 앞장섰다. 류후조는 대원군에게 편지를 보내

근자에 사당과 서원을 훼손하고 (위패를) 땅에 묻으라는 명령을 잇달아 내리시니, 이 거사가 국가를 위하여 서원의 폐단을 깊이 통찰하신 일이라 재야에 있는 몸으로 황송한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병산서원의 사액도 역시 훼손하는 그 가운데 들어 있으니 이 서원은 지난날 철종 계해년에 사림들이 사액을 통하는 소를 올려 특별히 윤허의 명령을 받은 것은 온 조정이 다 같이 듣고 본 사실입니다. 사액의 이름을 비록 宣下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나, 또한 시행하지 말라는 하교도 없었으니 先王이 내리신 명령은 그대로 있습니다. (...) 국법을 밝히는데 지나친 한탄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 문충공을 봉향한 서원으로 사액을 받지 못한 南溪書院 같은 곳은 일시에

37) 『羅巖隨錄』, 4쪽. 이때 대원군은 남인인 韓啓源, 姜蘭馨에게 편지를 하여, “영남의 이른바 虎論 명색이 典祀 문제로 모인다고 하는데, 이는 午人(남인)이 반드시 망하는 때이다. 이런 일은 우리 앞 왕조에서 하지 못하던 일이다. 우리 아들, 손자들이 행할 수 없는 일을 나의 생전에 영남 유림이 천 번, 만 번 해도 반드시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38) 이 때, 통문 속에 “天日復明 覆盆均照”이라는 말이 있어, 대원군이 진노하였다. 대원군은 영남 출신의 승지 李晩運에게 편지를 보내, “이 8자가 무슨 의미인가? ‘日’은 임금이니, ‘復明’한다고 하면 누가 임금이 된단 말인가? 그 이름은 무엇인가? (...) 복명하는 날은 과연 언제인가?” 등의 노여움을 드러내었다. 그리고는 이런 통문은 지은 유생들을 결박하여 잡아 올리라고 명하였다.

다 같이 훼손하였으나 동일한 선조의 서원이었는데도 감히 아무 말씀도 아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산서원은 지난 날 사액의 명령이 내려졌으며, 지금
사액된 서원은 제외하라는 명령을 받든 까닭입니다. (...) 특별한 처분을 내
려 주시길(...)³⁹⁾

라고 하였다.

이때는 사액서원이었던 병산서원, 호계서원은 살아남았지만, 호계서원
은 1871년에 훼손되었다. 이런 조치가 나오자 먼저 성균관의 영남 유생
이 掩堂을 행하였다. 장의 趙寅植이 먼저 통문을 내자, 성균관에서 수학하
던 안동 출신 진사 金喆銖가 분개하여 ‘掛巾食堂’하였다. 성균관 泮長 大司
成 정태호가 이를 대원군에게 알리자 대원군이 크게 화를 내고 성균관의
僉座에게 편지를 보내 “서원의 훼손, 불철 문제는 소인(鯁生: 송사리)이나
하는 일”이라고 하고, “병인양요 시절에도 首善의 땅에서는 말 한마디 없
었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권당에 참여한 유생들은 축출하고 다른 유생
들을 들이라고 지시하였다. 권당으로 28명이 나갔으나 당일에 들어온 사
람은 8명뿐이었다. 대원군이 다음날에 더욱 노하여 4색의 영수들에게 편
지를 보내 이를 ‘忠逆’의 문제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같은 남인이지만 상
주의 柳寅睦(류후조 조카), 예안 李晩起(참판 이만운의 동생), 경주 孫相駿,
상주 金奎學 등은 권당을 비판, 배척하는 통문을 내고, 진사 吳翊相도 역

39) 『洛坡先生文集』, 「上大院君 別紙」, 戊辰(1868), 32~33쪽 ; 『羅巖隨錄』 ... 대원군은
류후조에게 답하기를 “서원은 망국의 근본”이라고 하고, “소생은 나의 손으로 먼
저 인평 선조의 서원을 훼손하여 불초한 점이 극에 달하였다. 합하는 그러하지 않
으니 그 孝心이 간곡한 것이니, 지극한 효심이라 할 수 있다. 나와 같은 불초한 자
손의 마음으로 실로 합하의 지극하고 큰 효심에 부끄럽다. 대개 지금은 먼저 사액
받지 못한 것을 철거하지만, 필경에는 풍기 안문성공 사원에 앞서 일일이 훼손한
연후에 나라가 가히 나라다워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시 發通하여 권당을 발의한 李寅和, 李相翼, 李承濟 등과 掛巾한 金喆銖를 論罪하자는 통문을 돌렸다.⁴⁰⁾ 영남 유림 내부에서도 입장의 차이가 있었고, 이는 병호시비에서 연유된 것이었다.

4월에 ‘호계서원을 훼손한다’는 關文이 호계서원으로 왔다. 호파에서는 권당을 비판한 사람이 류인목, 이만기 등이었던 집에서 무엇보다도 병산서원 측에 의혹을 품었다. 그리고는 곧 바로 서원 존속을 위한 상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상소운동의 핵심은 훼손된 안동의 호계서원과 상주의 도남서원이었다. 이들은 영남 유생을 결집하여 1만 27명의 이름으로 반대 상소를 행하였다. 4월 15일 영남좌도 유생은 안동 西岳寺에, 우도 유생은 25일 상주 도남서원에서 모였다. 그들은 “국가의 존망이 吾道の 존망에 달려있고, 오도의 존망이 사원이 훼손되느냐 훼손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4월 28일, 의성에서 좌우도 유생 200여 명이 모여 정민병을 소수로 추대하였다. 정민병은 도남서원에 모셔진 정경세의 후손이었다. 이때는 마침 신미양요가 일어난 즈음이었다. 따라서 유생들은 內修外攘이 나라의 본무라고 하고, 외세의 근심이 있는 상황에서 서원을 훼손하는 것은 儒風을 없애 원기가 흩어져 사학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¹⁾

영남의 유생들은 6월 2일 소행을 시작하였다. 이 소행에는 같은 병파였던 병산서원 쪽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수 정민병은 상주 우천의 동문인 류주목에게 편지를 보내 “足下는 당세의 大賢으로 자처하는데, 오히

40) 『羅巖隨錄』, 15~16쪽. 김철수는 충청도 문의로 정배되었다가, 대원군의 명으로 惡地인 명천으로 移配되었다.

41) 권오영, 앞의 책, 2003, 369~370쪽.

려 당세의 대현이 죄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동참을 권하였으나 류주목은 오히려 상소를 막기 위한 防疏 통문을 돌렸다.⁴²⁾

유생들의 상소에 대해 대원군도 강경하였다. 대원군은 양요와 같은 외침이 있는 때에 안동의 유생들이 서양 세력 배척보다는 서원 훼손 문제에 힘을 쏟고 있는 사실에 화가 나 있었다. 대원군은 류후조에게 편지를 보내 “이는 無父無君의 부류이다. 내가 霹靂을 숨기고 입성하는 것을 기다리겠으니, 이런 뜻을 전하라”고 하고,⁴³⁾ 소수 정민병은 잡아 경기감영을 거쳐 경상감영으로 넘겼다. 그리고는 7월 9일에 도남서원, 8월 2일에 호계서원을 훼손해 버렸다.⁴⁴⁾

대원군이 정권에서 물러난 이후, 형식적으로 만동묘는 복설되었지만, 그 외 서원을 복원하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서원 복설 문제는 이후 호파를 비롯한 영남 유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유생들은 시무책을 건의할 때나, 正學인 유교를 지키자는 논의를 할 때는 언제나 서원 복설을 청원하였다. 가령 1877년에도 호유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상소운동이 추진되었다. 8월에 의성[聞韶]에서 대회를 열고, 봉화 西谷의 權璉夏를 소수로 추대하고 각 문중, 지역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병유들은 소를 정지하고, 다음해 봄에 소를 올리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상주의 정씨, 인동의 장씨 등 병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호파들은 10월에 소수서원에서 다시 모여 병으로 나오지 못한 소수를 대신하여 금곡의 朴周鍾을 소수로 천망하고 서울로 올라갔다. 이때에도 병유들은 몰래 投牌하여 본래 병유인

42) 『羅巖隨錄』, 16쪽

43) 『羅巖隨錄』, 16쪽.

44) 이수환, 「대원군의 서원훼손과 영남유소」, 『嶠南史學』 6, 1994

박주종과 절교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이듬해 정월 초에 상소를 올렸다.⁴⁵⁾ 여전히 서원 복설 문제는 병호시비 속에서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1883년, 신사척사상소운동으로 병호시비가 약간 잠잠해진 때였지만, 병파에서는 1805년 추진했던 4현의 문묘승무를 다시 추진하면서 서원 복설 문제도 들고 나왔다.⁴⁶⁾ 봉화의 權世淵은 선비의 士氣가 나라를 지탱하는 원기라고 하면서

선비의 기운을 세우고 기강을 진작시키는 방법은 道學을 존중하여 받드는 데에 있고, 도학을 존중하여 받드는 일은 선현에게 보답하여 제사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 이제 사원을 훼손하고 나자 선현들의 풍교와 덕화가 날마다 막히고 많은 선비들을 이끌어 인도하는 방향이 갈피를 잡지 못하여, 올바른 것이 어지럽혀지고 의리가 무너져 내리며 염치가 없어지고 윤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 모두 이것에서부터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지켜 사양하는 풍속이 위에서 점차 침체하게 되고 보고 들어 본받는 효과가 아래에서 점차로 쇠미해져서, 사기가 이로 말미암아 없어지고 시대의 풍속을 숭상하는 일이 이로 말미암아 점차로 무너지게 되니, 우리 성조에서 시폐를 구제하기 위해 마땅히 힘써야 할 것으로는 사원을 다시 설립하도록 허락하는 일보다 급한 일이 없습니다.⁴⁷⁾

라고 하였다. 유생들이 견지했던 척사위정론의 핵심이 바로 서원 복설에 있었던 것이다.

45) 『羅巖隨錄』, 200~205쪽. 132 『朴周雲 상소』, 133 『朴周鍾』 등 ; 『高宗實錄』 15년 1월 24일 ; 1월 25일. ; 권오영, 앞의 책, 376~377쪽.

46) 권오영, 위의 책, 380~381쪽. 이에 비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병파에서는 서원 복설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류성룡 단독 문묘 승무를 추진하였다.

47) 『承政院日記』 고종 20년 12월 11일.

2) 대원군 봉환 상소 운동(1875)

고종은 1873년 10월, 同副承旨 崔益鉉 상소를 빌미로 대원군을 밀어내고 親政을 시작하였다. 그러자 원로대신들의 사직청원과 안기영 이하 남인들의 최익현 규탄 상소가 이어졌다.⁴⁸⁾ 남인들에게 대원군의 퇴진은 정치적 후원자를 잃는 것이었다.

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四色을 고루 등용한다는 명분 아래 노론 세도세력을 억압하였다. 북학파의 후예 박규수를 비롯하여 노론 세력 가운데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은 계속 등용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정권에서 배제되었던 남인, 북인도 등용하였다.⁴⁹⁾ 대원군은 집권하기 전에 영남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인적 관계를 형성한 바 있었다. 대원군이 등용한 남인 세력은 주로 ‘京南’이었고, 몇몇은 영남 남인 가운데 중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류후조였다. 그는 공조판서를 거쳐, 우의정, 좌의정에 올랐다. 그 외 한주 이진상의 숙부였던 이원조가 공조판서에 기용되었다.⁵⁰⁾ 물론 서원 樞軸 등에서는 입장을 달리하였지만, ‘영남’은 대체로 척사론적인 입장의 대원군의 정책에 심정적으로 동조 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원군을 든든한 후원자로 여기던 남인, 특히 병유들에게 대원군의 실각은 정치적 위기였던 것이다.

48) 대신들의 사직 청원 외에 安驥泳, 許元祐, 성균관 유생 등이 최익현을 비난하는 상소를 하였다(『高宗實錄』 10년 10월 28일 기사 참조.) 1881년 이재선 사건의 주모자였던 안기영이 최익현 규탄에 앞장 선 점이 흥미롭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진영, 『19세기 후반 영남유림의 정치적 동향』, 『한말 영남 유학계의 동향』, 영남대출판부, 1998, 131~133쪽.

49) 김병우, 앞의 책, 참조.

50) 정진영, 앞의 글, 1998, 109~115쪽. 물론 남인의 등용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자리였고, 노론 유력 가문 사이에서 그 역할은 한정적이었다(164쪽).

친정을 시작한 고종은 민씨 세력을 등용하면서 대원군에 의해서 추진된 몇몇 정책을 수정하였다.⁵¹⁾ 무위소를 신설하여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군사를 소속시키고, 병인양요 후에 설치된 강화 진무영을 폐지하였다. 또한 서원 철폐의 상징이었던 萬東廟도 다시 세웠다(1874). 이런 조치에 대해 물러나 있던 대원군이 반발하였다. 특히 강화 진무영이 폐지되자, 대원군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는 덕산의 남연군 묘를 참배하고 바로 양주 직곡으로 거처를 옮겨 버렸다. 이는 고종의 정치에 대한 시위였다. 이 문제로 전국 유림들이 대원군이 돌아오게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특히 영남의 남인이 대원군 봉환 상소운동을 행하였다. 이를 주도한 세력은 대원군과 관련이 깊던 병유들이었다.

1874년(고종 11) 10월, 예안의 李彙林이 상소하여 “아버지가 된 정분으로 오랫동안 떨어져서 계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다.⁵²⁾ 그리하여 25일 안동의 崇報堂에서 250여명의 유생이 모여 道會가 열렸다. 유생들은 상주의 鄭民采를 疏首로 추대하고, 11월 20일 문경 유곡에서 소행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정민채와 안동의 李中麟 등이 안동부에 구금되었다. 이에 유생들은 다시 李中振을 소수로 뽑아 상소운동을 추진하였다. 12월 8일 서울에 도착한 소유들은 다시 사퇴한 이중진을 대신하여 柳道洙를 소수로 뽑았다. 이들 유생은 상경하여 이듬해 3월 초에 伏閣 상소를 시작하였다.

류도수는 의성 사촌출신으로 류후조의 아들인 류주목의 제자였다.⁵³⁾

51) 정진영, 위의 글, 133~135쪽.

52) 『承政院日記』, 고종 11년 10월 20일. 조정에서는 이휘림에게 벌을 내려, 멀리 정배(강진 고금도)해야 한다는 질책이 계속 이어졌다.

53) 류도수의 상소 운동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설석규, 『조선시대 嶺南儒生の 公論形成』

병파의 중심적인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안동의 安東疏會에 참석하여, “이는 한 나라의 흥폐가 달려 있는 때이다. 비록 出位の 말이라도 어찌 침묵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리고는 류후조와 이를 상의하였는데, 류후조도 “이일은 마땅히 성의로써 天聽을 感回시켜야 한다. 혹시 풍문을 듣고 놀라서 분산하면 우리들이 수치이다”고 하면서 빨리 달려가라고 권하였다. 그는 소두 정민채가 상소를 올렸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으로 위촉된 유생들을 독려하였으며, 대원군의 만류 의사도 거부하였다.⁵⁴⁾ 그리고 1875년 2월 3일 소두로 천망되자 사양하다가 2월 20일에 出座하여, 3월 3일 伏閣하였고, 5일에 상소문이 올려졌다. 그는 이 상소가 “비단 저희들의 한두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는 一道의 공론이며, 일도의 말이 아니라 전국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바”라고 하였다.⁵⁵⁾

유생들이 대원군 봉환을 주장하는 명분은 ‘효’의 문제였다.

앞드려 생각하옵건대, 대원위 閣下께서 교외의 집으로 행차하신 것이 오직 쾌적하신 휴양을 위하신 거동이시오니 우리 聖上께서 承順無違(순종하여 어김이 없는 것)의 탁월하신 효성이옵기에 더욱 欽誦하옵을 다 할 수 없습니 다. (...) 전하께서 하루 속히 어가를 움직이셔서 환차를 청하시와 위로는 융성한 봉양의 효성을 독실하게 하시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기도하는 여망에 보답하여 주옵소서.⁵⁶⁾

과 柳道洙의 萬人疏, 『退溪學과 韓國文化』 44, 2009. 참조.

54) 『閩山集』 권8, 「行狀」(525~526쪽).

55) 복합상소의 과정과 류도수의 활동은 『閩山遺稿』 「疏廳日錄」 참조.

56) 『閩山遺稿』, 『北薦芹曝錄』, 「請奉還大院位疏」(『閩山別集』 37쪽)

라고 하였다. 이 ‘효’ 문제는 이미 대원군이 실각한 때부터 제기되던 문제였다.

또한 류도수는 「擬疏」에서 신하와 자식의 충효를 거론하면서 동시에 대원군이 행한 일련의 정책을 높게 평가하였다.

대원위께서는 전하 친아버지이시며 東方의 大老이십니다. 조정의 정사를 대리하시와 조정을 바로 잡으셨으며 기율을 진기숙정하시와 紀綱을 세우셨으며, 전하를 保養하시와 임금으로서의 덕을 닦게 하셨으며 안팎을 진정 안무하시와 인심이 열복토록 하셨으며, 軍備를 보수하시와 兵禍를 대비하셨으며, 양학을 물리치시와 간사한 기류를 끊으셨으니, 이러한 업적은 실로 楊朱(춘추시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를 물리쳤던 孟子的 공과 같음이 있으셨으니, 이른바 공이 우임금의 아래 있지 않으셨습니다.⁵⁷⁾

라고 하여, 대원군을 동방의 大老이면서 내외의 업적은 맹자와 같으며, 우임금의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대원군을 간사하고 사특한 무리들이 교묘한 말을 퍼뜨려 부자 사이를 이간시켰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자 사이의 ‘효’를 들고 나온 것도 임금에 대한 영남 유생의 도리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영남의 남인이 크게 은총을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은으로 상소를 행했다는 것이었다. 곧 “역대 임금께서 영남을 돌보시와 생각하였음이 그처럼 오래되었으며, 영남을 예의로 대우해 주신 것이 그처럼 은근하였사오니, 영남의 선비로서 전하를 위하여 몸을 버리고 한번 보답할 성의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종의 의사는 확고하였다. 오히려 고종은 이를 왕권에 대한

57) 『閩山遺稿』, 『北薦芹曝錄』, 『擬疏』(37~38쪽).

도전으로 받아 들였다. 그리하여 유소의 주도자 류도수는 吉州에, 이학수는 楚山에, 이상철은 甲山에, 서승렬은 碧潼 등, 遠惡地에 귀양 보내고, 그 밖에 여러 유생들은 모두 쫓아 보내 버렸다.⁵⁸⁾

만인소의 주도자들이 유배에 처해진 이후에도 상소운동은 계속되었다. 영남 유생뿐만 아니라 호남, 관서, 황해 유생 등도 가담하여, 5도 유생 천여 명이 복합 상소를 행하였다. 이에 대한 고종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였다. 奉疏하기 전에 모두 유배 처분을 내리고, 주도자 최화식 등을 처형하겠다고 하였다. 대원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곤경에 빠지자 대원군은 운현궁으로 스스로 돌아왔다. 이에 고종도 주도 유생들은 처형하지 않고 모두 원악도에 유배시켰다.⁵⁹⁾

대원군 봉환 상소운동은 넓은 의미에서, 대원군과 그 지지 세력과 정부, 민씨 세력 사이의 정치적 대결의 한 과정이었다. 대원군이 민씨 세력의 개혁 사업에 불만을 표하면서 서울을 떠나 버리고, 이를 기회로 보수적 유생들의 상소가 이어졌으며, 또 그런 과정에서 민씨 세력의 수령 민승호가 11월에 집에 배달된 폭약이 폭발하면서 사망하였다. 때문에 고종과 민씨 세력은 더욱더 강경하게 상소를 행한 유생들을 진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 세력 사이의 대립은 1881년에 '이재선 사건'으로 불리는

58) 『高宗實錄』 12년 3월 6일. 류도수는 외세의 침투에 대해서는 군사력 강화보다는 도덕과 명분에 입각한 나라의 결속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군주가 경연을 통해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학도」를 올렸다.(『북천근폭록』). 류도수는 이후 18년간 귀양살이를 하였다. 1880년에 길주에서 평해로 옮겨다가, 1882년 8월에 석방이 되어 잠시 돌아왔다가 다시 몇 달 뒤 유배되었다. 1884년 10월에야 완전하게 해배되었다.

59) 『承政院日記』 고종 12년 6월 24일.

‘역모사건’으로 비화되었다.⁶⁰⁾ 이때는 후술할 『조선책략』을 반대하는 영남 유생의 만인소 운동이 전개되던 때였으므로, 대원군 세력은 이런 反外勢, 斥倭의 여론을 배경으로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 급기야 고종을 폐위 하자는 역모를 꾸민 것이다. 『梅泉野錄』에는

辛巳(1881년) 겨울에 李載先의 옥사가 일어났다. 이재선은 운현(대원군)의 庶子로, 甲子(1864) 이후 別軍職에 있었지만, 머리가 아둔하고 콩과 보리를 가리지 못했고, 사람들도 그를 알지 못하고 다만 “운현에게 庶子가 있다”는 것만 알았다. 대원군이 실세한 지 오래되어 그 가까운 사람들도 정권에서 소외되어 廢籍된 것과 다르지 않았고, 모두 답답하여 분통하게 생각하였다. 前承旨 安驥泳, 權鼎鎬가 儒生 任哲鎬, 丁健燮 등과 이재선을 추대하려고 하였다. ‘九日 중앙절에 높은 산에 오른다’라는 말에 가탁하여 그 친구 蔡東述을 끌고, 南漢山城에 올라가서 자초지종을 말했는데, 채동술이 응하지 않았으며, 다만 누설하지 말 것을 약속하였다. 전 현감 柳道錫[柳道奭]은 故 재상 柳厚祚의 손자로, 모의에 참여하여 10년간 慶尙監司를 약속 받았다. 동맹한 사람은 모두 南人과 北人으로, 노론으로 참여한 사람은 北村의 庶孽 몇 사람으로, 거사를 같이 하기로 약속하였다. 廣州의 장교 李豊來도 모의에 참여한 사람이었는데 이를 위에 고변하였다. 驥泳, 鼎鎬, 哲鎬, 健燮 이하 모든 역적은 사형되었고, 처자는 노비가 되었다. 동술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 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처형되었고, 류도석은 그 조부가 임금이 처음 등극하였을 때 공을 세운 사람이라 감형하여 섬으로 유배되었다. 이재선은 서문 밖의 민가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는데, 재선은 죽음에 임해서도 무슨 죄에 연루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 옥사는 왕후가 꾸민 것이라고도 하고, 안팎에서 자자하게 雲峴이 화근이라고 하였으나, 운현은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61)

60) 조성윤, 「개항 직후 대원군과의 쿠데타 시도」, 『한국근대정치사연구』(양상현 편), 사계절, 1985 ; 宋炳基, 「辛巳斥邪運動 研究」, 『史學研究』 37, 1983.

61) 『梅泉野錄』, 국사편찬위원회, 1955, 61~62쪽.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재선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지만,⁶²⁾ 주로 대원군을 지지하는 남인 관료, 유생들이 고종을 비롯한 민씨 집권세력을 축출하려고 모의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 모의에 당시 정부의 개화정책에 불만을 가진 민중층을 동원하려고 하였다. 성사의 가능성을 낮게 본 대원군의 소극적 대응과 내부의 고변으로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세간에 이 사건을 왕후가 꾸짖었다고 본 것처럼, 정권을 둘러싼 민씨 세력과 대원군 세력 사이의 대립에서 대원군 세력이 패배한 것이었다.

이 사건을 주도한 것은 남인 세력이었다. 핵심 주모자였던 安驥泳(前承旨), 權鼎鎬(前承旨)를 비롯하여 蔡東述(前承旨)은 정조 때 남인의 영수 체제공의 후손이었다. 여기에 류후조의 손자이자 류주목의 아들인 柳道爽(前縣監)이 연류되었던 것이다. 모의 집단에서의 역할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심문 과정에서 그의 이름이 나와 결국 유배되었던 것이다.⁶³⁾ 또한 이들은 대개 대원군봉환 상소의 소수였던 류도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⁶⁴⁾ 이 사건으로 대원군 세력이 대거 제거되었고,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던 만민소운동도 타격을 받아 끝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임오군란으로 대원군은 다시 잠깐 동안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62) 조성윤은 이재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주도했다고 분석하였으나, 송병기는 주로 『매천야록』에 기술한 것에 근거하여 이재선을 ‘天痴’ 수준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을 ‘안기영 사건’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송병기, 앞의 글, 1983).

63) 류도석은 姑從 丁建燮의 생일에 갔다가 연류된 것으로 보이며, 류후조의 후손이라는 점 때문에 참형을 면하고 전라도 녹도에 유배되었다(柳時濬 編, 『愚川四百年』, 豊山柳氏愚川門中, 2010, 109-110쪽). 그러나 노론 집권세력은 집요하게 주로 남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정조 이래 남인으로 죄를 받은 홍국영 이하 류도석을 포함한 죄인에게 노적법을 시행하고 요구하였다. 『승정원일기』에만 1894년 7월 10일 석방될 때 까지 무려 170여 차례나 계속되었다.

64)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진영, 앞의 글 150~151쪽.

IV. ‘병유’의 유교사회유지론과 척사운동

1. 개항 전후의 병유의 척사운동

(1) 병인양요 시기의 척사운동

1860년대, 당시의 사회 변화 속에서 재야 유생층은 주자학 이념에 따라 서양 침략을 인식하고, 內修外攘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였다. 이항로, 기정진이 보였던 척사론이 그러하였다. 이런 점은 집권한 대원군과 그 정치세력도 마찬가지였다. 대원군의 학문적 뿌리는 북학론이었다. 북학론에서는 서양의 기술은 ‘이용후생’ 차원에서 가능할 수 있으나, 서양의 종교는 유교사회 체제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반대하였다. 대원군도 왕조 체제를 위협할 수준인 西敎를 철저하게 탄압하고, 또한 무력적인 침략을 감행하는 서양에 힘을 다해 대항하였다. 대원군에 의해 등용된 류후조와 그 후손들, 그리고 영남에 있던 재야 유생들도 이런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⁶⁵⁾

1866년 우의정 시절 류후조는 王妃奏請使로 청국에 다녀왔다(4.9~6.6). 이때 그는 청의 문화를 보고 감탄하였다.⁶⁶⁾ 자제 군관으로 류후조를 수행했던 조카 柳寅陞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사행의 전 과정을 한글 가사로 「북행가」를 지었는데, 그 속에는 먼저 청국에 대한 감탄과 동시에 청국이 오랑캐의 후예(의복, 머리 모양, 언어 등)라는 점을 거론하고 조선에 대한

65) 류치명 학과의 척사론에 대해서는 권오영, 「유치명 학과의 형성과 위정척사운동」, 앞의 책.

66) 류후조, 「燕行日記」, 林基中 편, 『燕行錄全集』 75,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369-370쪽

자존 의식도 보였으며, 또한 북경에 와 있던 서양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으로 보았다.⁶⁷⁾

류후조는 이 사행 중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들었다.⁶⁸⁾ 서양의 위협에 그는 그 위험성과 동시에 이를 배척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귀국 후에 바로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그는 서양의 침략에 대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洋醜들이 멀리 달아나 당장은 다행”이라고 하면서, 서양의 침략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오직 防守의 엄밀, 軍實(병기, 군량, 장비 등) 검열, 기계 수리, 군량 축적 등에 있을 따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지방 수령을 선택하여 백성들을 회유 보호, 안정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사교를 다스린다고 그 근본을 다스리지 않으면 외국들이 전과 같을 것이라고 하고 엄중한 방어와 搜捕를 건의하였다.⁶⁹⁾ 곧 안으로 군기, 군사를 정비하여 엄밀하게 방어하는 것, 국가의 재정을 충실하게 하는 것, 그리고 백성을 안정, 보호하는 것 등이었다.

이런 대비책은 병인양요 직후에도 여러 차례 개진되었다. “내탕을 털어서 백성들의 곤궁을 구제하고, 조세를 감면하여 백성들의 어려움을 풀어주시어” 백성들이 恒産을 갖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節儉’ 두 글자를 정치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오직 전하께서는 검소함을 숭상한 옛 임금의 덕을 본받으시고 외부의 사치를 숭상하는 폐단을 살피시어, 독실, 소박에 더욱 힘쓰시어 모든 신하에게 솔선수범”하도록 진언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대책의 근본은 임금이 聖學

67) 홍재휴, 『北行歌 研究』, 효성여대출판부, 1991, 53~54쪽 ; 鄭柄國, 『此山 柳寅睦의 北行歌 研究』, 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74~81쪽.

68) 류후조, 『燕行日記』, 林基中 편, 『燕行錄全集』 75, 369-370쪽

69) 『洛坡先生文集』, 『陳時務仍乞辭免啓』, 병인 10월 20일, 150쪽.

에 힘써야 한다고도 하였다.⁷⁰⁾

류후조는 자신이 재상으로 이런 방안을 임금에게 촉구하는 한편, 상주에 있던 아들 류주목에게 상소를 올리게 하고, 또 서양을 막기 위한 의병을 일으키라고 지시하였다.⁷¹⁾ 그리고 외적을 방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군수를 위한 자금 모금도 주도하였다. 특히 대원군과의 관계 속에서 영남 지역 유생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류후조, 허원식 등 영남 남인은 병인양요 후 國用과 軍需 조달을 위한 통문을 보내고, 류후조는 신석호를 捐補錢都有司로 천거하여 영남 유생들에게 원납 참여를 호소하였다.⁷²⁾

류주목은 아버지를 대신하여⁷³⁾ 『擬上六條疏』라는 상소를 작성하였다. 당시 유생들의 유교 이념과 척사론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었다.⁷⁴⁾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70) 『洛坡先生文集』, 『陳勉聖學啓辭』 정묘(1867) 정월 15일, 151~152쪽 ; 『陳抑奢節財之道啓』 정묘 4월.

71) 『溪堂集』 부록 권1, 『行狀』 (七, 23~24쪽). 이때에도 류후조는 “우리 집안은 나라로 후한 은덕을 입었는데, 털끝만큼의 보은이 있어야 하니, 어찌 사양할 수 있으랴”라고 하였다. 이에 류주목은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낙동진에 진을 치고 진군할 준비를 행하였다. 류후조는 당시의 편지에서도 “외국 열강의 세력들이 강화도를 침공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염려하며, 신하들은 나라의 안위를 위해 봉기해야 한다”고 했다.(『1866년 류후조가 외국세력의 강화도 침공에 대해 전하는 간찰』, 開城高氏 鹿門宗宅,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허원식도 병인양요 후에 창의할 것을 주장한 격문을 지었다(『三元堂集』 권3, 『倡義檄文』).

72) 이에 대해서는 정진영, 앞의 글, 1998, 119~123쪽 참조.

73) 『상소』 속에는 류후조의 행적이 표기되어 있다. 즉 “신이 요동 땅으로 가는 길에 서양 오랑캐가 침략하여 소동을 일으킨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 또는 “연경의 숙소에 이르러 늦게야 돌아오라는 보고를 들음” “오직 마음만 급히 달리니 애간장이 타서 날마다 동쪽을 바라 보며 눈물만 흘렸었는데, 책문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砲煙이 걸렸다는 소식과 대동강에서 적선을 불태웠다는 보고를 접했습니다.” 등이 그러하였다.

74) 이에 대해서는 白道根, 『擬上六條疏를 통해 본 溪堂 柳疇睦 선생의 사상』, 『尙州文化研究』 5, 1995

- ① 勸聖學 : 임금은 한 나라의 사표이니, 경연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통감」, 「강목」 등을 숙독하며, 교화의 근본인 학교를 일으켜 삼대의 융성한 법을 숭상할 것.
- ② 嚴邪禁 : 이단은 誣惑의 邪術이자 禍亂의 근본이므로, 서양의 종교를 배척하고, 양이의 물품을 불태우면 그 효과가 커서 백성들이 따르게 될 것임.
- ③ 得賢才 : 나라를 위하는 길에 어진 인재를 얻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음. 지연이나 혈연에 구애되지 말고 실제 능력 위주로 추천하여 쓸 것.
- ④ 修武備 : 군병과 군비를 위한 평상시의 훈련, 점검과 이를 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주자의 사창법을 실시할 것. 방어를 위한 산성 축조(문경 조령 등), 배를 만들어 바다를 방비할 것(교동, 통영, 거북선 등)
- ⑤ 淸仕路 : 벼슬길이 문란해지면 요행을 바라고 나라의 체면이 손상되며, 사대부로 하여금 염치를 손상하게 하고 예의를 버리게 하는 것이므로 小人輩들을 경계하여야 함.
- ⑥ 定民志 :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므로, 농사를 장려하고 가난한 백성을 널리 구휼할 것. 생업을 두터이 하고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하고, 공을 빙자하여 조세를 독촉하는 것은 금할 것.

류주목이 강조한 것은 임금의 聖學 확립, 사교의 금지, 그리고 정치권의 원칙적 운영과 백성 안정이었다. 그 가운데 특히 武備를 위해서 강조한 山城의 축조는 그들의 학문의 연원이었던 류성룡의 예를 들어 이를 제안하였다.

(산성은) 싸우고 지키는 데에 이로우니 실로 保民守國의 가장 좋은 계책입니다. 이 일은 먼저 文忠公 鄭夢周의 「金海山城記」 및 신의 선조 文忠公 成龍의 「山城說」에서 이미 말한 것입니다. 진실로 원컨대, 이 일을 각도에 지시하

여 군읍에 산성이 있으면 본진 외에 오래되어 폐지된 성이나 성을 쌓은 만한 곳에 계획하여 들어 수축하게 하고, 그 가운데 사창을 설치하여 민호를 모집하여 살게 하면서 지키게 하고, 그 부근의 衿民들은 평소에는 糶糴으로, 변고가 있으면 들어가 근거하게 하여, 별과 같이 포진하고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름만 있고 실효가 없는 평지의 城壕보다는 크게 나올 것입니다.⁷⁵⁾

라고 하였다. 산성을 쌓아 서양의 침략에 대비해야 하고, 그 논리를 류성룡의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었던 것은 영남의 여러 유생들도 제기하던 바였다.⁷⁶⁾

다음으로 류주목의 상소에서 주목되는 것은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일이었다. 이는 유교 이념 아래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면서, 동시에 유교 질서 아래 농민층을 묶어 두는 방안이었다. 이런 방안은 그의 부친 류후조가 이전에 시행했던 대농민 통치책을 계승하였을 것이다.

류후조는 강릉부사 시절 ‘강릉향약’을 제정, 실시하였다(1857). 향약은 “교화를 잡아 세워 彰善懲惡하는 뜻”이라고 하고, 그 내용은 藍田鄉約을 增損한 朱子와 여러 논의를 절충한 退溪鄉約을 ‘전용’하여 마련하였다. 그런 가운데 특히 농민층에 대해서 “향론에 따르지 않는 자”, “조세 부역에 근실하지 않는 자”, “명분을 문란하게 하고 사족을 능멸하는 자” 등에 대

75) 『溪堂集』 권2 「擬上六條疏 代家大人作」 (一, 146쪽)

76) 『承政院日記』 고종 3년 9월 3일. 전 헌납 林周雲 상소. 그는 “임진왜란 때 선정 文忠公 柳成龍이 일찍이 山城에 관한 말을 하였는데, 그 결론에 ‘만약 이 방법을 놓아 두고 따로 나라를 보존할 수 있고 백성을 편안히 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로 올라가거나 땅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불가할 것이다’고 말하였습니다. (...) 유 문충공은 임금을 도와 세상을 구제할 만한 재주를 가진 인물로 中興의 온갖 책임을 담당하여 그 몸을 다 바치며 대비하여 막고 싸워 지킬 알맞는 계획에 정성을 기울여 수천 만 마디의 진언을 올렸는데, 形勢에 관한 통설의 큰 요점에서 첫째도 산성을 말하였고 둘째도 산성을 말하였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한 규제를 규정하였다.⁷⁷⁾

류후조는 1862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농민항쟁의 수습에 관여하였다. 농민항쟁 당시, 자신의 고향이었던 상주의 목사(조영화)의 항쟁 수습 활동을 칭송하는 송덕비의 비명을 쓰면서 목사, 관찰사(이돈영), 영의정(정원용)의 개혁 자세를 언급하였다. 그 방안은 삼정의 원칙적인 운영과 환곡의 폐단을 개혁하는 정부의 입장이었지만, 류후조는 이를 “王安石 같은 개혁”이라고 하였다.⁷⁸⁾ 이런 점은 류후조의 송덕비에도 그대로 언급되었다.

삼정의 폐단을 바로 잡은 뒤에 사우를 짓고 비를 세운 것은 영의정 정원용, 경상도 관찰사 이돈영 및 상주목 조영화 세 분의 矯正한 일을 칭송한 것이다. (...) 유상공이 방편을 강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속의 폐단과 백성의 가여움을 어찌 상세히 다 알 수 있었겠는가. 그런 즉 상주군의 군전조 삼정의 교정할 방책은 참으로 모두 유공의 商量 確定한 것을 조목사가 시책을 펴고, 이관찰이 중앙에 啓請하고, 정상공이 임금에 奏達함으로써 삼정의 교구가 충분히 완고히 된 것 (...) 1866년에도 흉년이 들었을 때, 유상공이 정승으로 있을 때 특별히 군민을 위해 도에 상의하여 돈으로 대납하게 하여 군민의 식량 사정이 조금 넉넉하게 되었다.⁷⁹⁾

라고 하였다. 상주 목사의 성공적인 삼정 문란 수습은 류후조의 방안을 그대로 시행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정승으로 있던 류후조의 삼정 이정 방

77) 『洛坡先生文集』, 「江陵鄉約 哲宗丁巳施行各面」, 352~362쪽. 또한 류도수는 류후조가 재상이 되자 재상의 역할을 강조한 「相鑑博議」를 저술하여 올리면서 동시에 “朱文公이 增損한 여씨향약을 시행하도록 주청할 것을 청”하였다(『閩山遺稿』, 「擬上大學圖請進講大學疏」(『閩山別集』, 41쪽)).

78) 『洛坡先生文集』, 「壬戌三政矯揉頌德碑銘 并序」, 516~517쪽.

79) 『洛坡先生文集』, 「文憲公洛坡柳相國頌德碑文」, 1017쪽.

안은 곧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⁸⁰⁾

2) 개항 후 척사 활동

병인양요 때, 병유들은 재상으로 있던 류후조와의 연관 속에서 서양의 침략을 막기 위한 대내외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이런 대응은 호유와도 달랐다. 그러나 그 역으로 개항 이후 일본의 침략과 국권 상실 속에서는 호유들이 병유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유생층의 척사론은 언제나 유교의 중심이 되는 임금이 聖學을 확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치를 시행하는 것, 그리고 유생들은 유교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유교를 지키기 위한 호유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서원을 복설하는 문제로 모아졌다. 이런 점 때문에 대원군은 양요 같은 왕조국가의 위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안동 유생들이 서원 문제에만 매달려 있던 점을 질책하기도 하였다.

일본과 개항 조약[朝日修好條規]을 체결했을 때(1876)도 안동지역의 유생, 특히 호파는 이에 대한 의사 표명보다는 서원 문제를 거론하였다. 유치명학파인 이돈우는 立志, 居敬, 納諫, 愛民, 崇儉, 恢公, 立綱, 斥邪, 興學 등을 건의하면서, 정확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원을 복설해야 한다고 주장

80) 당시 정부는 삼정의 개선 및 부분 개혁하는 입장에서 방안을 마련하였다(金容燮, 「哲宗朝의 應旨三政疏와 三政釐整策」, 『韓國近代農業史研究Ⅰ』, 新訂增補版, 지식산업사, 2004). 이런 방안은 고관을 지낸 성주의 이원조의 방안과도 유사하였으나, 재야의 유생층에 비해서는 다소 보수적이었다. 가령 이진상(이원조의 조카)은 삼정문란으로 인한 賦稅不均 문제를 거론하고, 삼정 문란을 고치는 방안과 더불어 減租論도 주장하였다(金度亨, 「寒洲學派의 形成과 現實認識」, 『大東文化研究』 38, 2001 참조). 또한 호파였던 金道和도 삼정책을 개진하면서 井田制를 거론하였다(『拓菴集』 권10, 「壬戌六月 仁政殿對策」; 金容燮, 「韓末 高宗朝의 土地改革論」, 『韓國近代農業史研究Ⅱ』, 신정증보판, 지식산업사, 2004)

하였다.⁸¹⁾

그러다가 1881년에는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책략』을 반대하는 만인소 운동이 일어났다.⁸²⁾ 조선책략에서 주장하는 외교정책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도 그러하였지만, 무엇보다도 기독교를 '勸善'하는 종교로 보고, 이를 받아들여도 무방하다고 한 점과 주자를 폄하하고 육상산과 비교한 점도 유생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만인소는 안동의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즉 병호시비로 갈라진 영남 유림을 퇴계 후손들이 중간에서 통합하면서 추진하였다. 이에 이만손(예안)이 소수로 추대되었다.

이만손이 나서면서 영남의 각 파가 모두 참여하였다. 소론의 강진규가 상소문을 작성하였고, 또 성주의 이진상도 참여하였다. 이만손이 이끌던 영남만인소는 이후 유치명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다. 제2차 소수는 金祖永(안동 해저), 3차 소수는 金碩奎(영주 友琴), 4차 소수는 金鎮淳(안동 川前)이었다. 이 상소 운동에 병유의 류씨들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柳道性(하회)이 掌議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柳善榮(하회)가 寫疏, 柳道夔(하회)가 陪疏, 柳道默(우천)이 直日 등의 직임으로 참여하였다.⁸³⁾

영남만인소를 시작으로 진행된 척사상소운동에는 점차 기호의 화서계열은 물론 전국 유생들이 동참하는 대규모 운동으로 번졌다. 상소운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또한 확고하였다. 유생들의 의견을 참작하고, 또한

81) 『高宗實錄』, 14년 3월 4일.

82) 영남만인소의 전개 및 성격에 대해서는 송병기, 앞의 글, 1983 ; 권오영, 「1881년의 영남만인소」, 앞의 책, 2003 참조.

83) 『衛正斥邪疏草』 「爬錄」, 『慶尙史學』 10, 1994, 228~240쪽.(김준형, 「《衛正斥邪疏草》해제」 참조).

만인소로 표출된 감정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斥邪論音」을 내기도 하였지만(5, 15), 서양과의 통교와 기술 수용을 통한 근대화 개혁의 방향은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과격한 표현을 문제 삼아 유생들을 처형하거나 유배 보냈다. 그리고 앞서 본 이재선 역모 사건이 터지고, 만인소에 연관이 있던 남인들이 연류 되면서 특히 ‘영남’의 활동은 소멸하게 되었다.⁸⁴⁾

1881년의 영남만인소 이후, 영남 유생들은 상소운동과 같은 적극적 대응책을 행하지 않았다. 주로 지방에서 사족 중심의 향촌사회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族契나 鄉約을 실시하였다.⁸⁵⁾ 그런 가운데 간혹 유교 문명의 위기라고 생각할 때는 개인적, 혹은 지역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였다.

1884년 윤5월, 정부에서 복제를 고치자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행하였다. 고종은 朝禮, 祭禮, 喪禮 때 입는 옷은 先聖의 遺制이므로 바꿀 수 없지만, 私服은 때에 따라 변통할 수 있는 것이므로 두루마기[周衣] 등의 넓은 소매[廣袖] 등은 생활에 불편하므로 좁은 소매[窄袖]로 하도록 하였고, 또한 朝籍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모두 黑團領(검은색 둥근 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⁸⁶⁾ 이에 대해서 안동의 金道和는 服色은 바꾸고 고친 것은 “부녀자의 사치스러운 옷과 승려의 검은 옷을 입히는 것”이라고 반대하였고,⁸⁷⁾ 봉화의 權相翊은 「深衣制度攷辨」을 지어 심의의 원형을 고증하였으며,⁸⁸⁾ 이진상도 또한 그러하였다.⁸⁹⁾ 대원군 봉환상소로 귀양 갔다가 돌아온 류도수는 고을 원이 관노를 시켜 옷감을 사다 주면서 입고 있던 옛

84) 정진영, 앞의 글, 1998.

85) 김도형, 앞의 글, 1993, 233~239쪽.

86) 『日省錄』 고종 21년 윤5월 24일, 25일

87) 『拓菴續集』 권2 「請衣制勿變疏」.

88) 『省齋集』 권7 「深衣制度攷辨」并圖 ; 속집 권5 「新定五服圖」.

89) 『寒洲集』 권31 「衣制論」 甲申.

날 옷을 왕명이니 고치라고 권하자, 그는 “좁은 소매와 선왕의 법복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듣지 않았다.⁹⁰⁾ 류응목도 복제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유자들이 입어야 할, 深衣, 緇布冠, 幅巾, 大帶 제도에 관한 정리와 의견을 개진하였다.⁹¹⁾

한편, 유생들은 당시 향촌 사회에 번지고 있는 이단인 동학을 배격하는 일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 또한 정확인 유학에서 보면 서양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邪學’이었고, 유생들은 이를 ‘斥邪’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일찍 1863년 상주의 愚山書院과 道南書院에서는 도내의 유림들에게 통문을 내어, 동학을 “서학이 모습과 이름을 바꾼 것[改頭幻名]”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고, “동학은 무당이 귀신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은 부류이며, 무지하고 천한 무리들이 많이 물들고 다른 이단처럼 지식인이 현혹될 만한 이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동학이 광범하게 유포되고 장차 지방관의 권한을 빼앗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였으며, “동학은 사람을 도깨비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류후조는 1863년 12월 도남서원에서 발송한 동학 배척 통문에 참여하였다.⁹²⁾

안동의 李晩燾는 동학과 같은 사학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正學인 유교를 높이고 儒賢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마땅히 철폐한 서원을 복구해야 한다고 하였다.⁹³⁾ 그리고 이승희도 보은에서 동학의 집회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通諭東學徒文」을 지어 동학이 정도에 어긋난

90) 『閩山集』 권8, 附錄 「墓碣銘」(柳道獻 撰).

91) 『鶴山文集』 권5, 「深衣制度」, 「緇布冠制度」, 「幅巾制度」, 「大帶制度」. (一, 419~427쪽).

92) 崔承熙, 「書院(儒林)勢力的 東學 排斥運動 小考」, 『韓祐昞停年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1.

93) 『響山集』 권2 「擬請斥東學復書院疏」, 癸巳

다는 점, 서학을 배척하면서도 실제로 비슷해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⁹⁴⁾

1894년 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영남의 재지 사족층은 농민항쟁을 제압하기 위한 ‘의병’, 곧 民堡軍을 결성하였다. 관군으로 모든 지역의 농민항쟁을 해결할 수 없었던 정부는 삼남의 주요 군현에 召募使를 임명하여 민보군을 조직하게 하였다. 호남, 호서, 영남에 각 2명씩 임명되었는데, 영남에는 창원부사 李鍾緒와 상주의 전 승지 鄭宜默이 선임되었다(9월). 정의목은 서애의 제자 정경세의 후손으로, 다른 소모사가 모두 현직 지방관임에 비해 상주에서만 ‘巨族大家’ 출신을 활용하였다. 이렇게 해야 영남 북부 지역의 유림, 문중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모사 정의목의 소모 활동에 많은 유림이 합세하였고, 의병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의병대장에 전 현감 柳道奭을 추천, 선출하였다(10월). 이재선 사건으로 유배되었던 류도석이 막 해배(7월)된 직후였으나 이때는 아직 鄉第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의병장으로 出座한 것은 약 한달 뒤였다.⁹⁵⁾

94) 琴章泰, 1985. 「韓溪 李承熙의 生涯와 思想(1)」, 『大東文化研究』 19, p.11

95) ‘의병장’으로 추대된 류도석은 “성 밖에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였다(『召募日記』, 10월 28일,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3)』, 430쪽). 류도석이 의병장으로 ‘출좌’한 것은 11월 29일이었다(같은 책, 442쪽). 상주의 의병장보다는 소모영의 활동이 더 활발하였는데, 소모영의 유격장이었던 金奭中이 편찬한 『討匪大略』의 12월 기사에 류도석이 의병장으로 활동(소극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도 있다(같은 책, 391~392쪽). 김석중은 아마도 이 공로로 이듬해 새로운 지방제도 아래(23부)의 안동부 부사로 임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모사 정의목도 공로를 인정받아 『甲午軍功錄』에 기재되었다(『東學亂記錄(下)』, 국편, 716쪽). 경상도 서북부 지역의 농민전쟁과 각 지역의 보수 세력의 대응에 대해서는 申榮祐, 「甲午農民戰爭과 嶺南 保守勢力의 對應」, 연세대 박사논문, 1991 ; 정진영, 「1894년 농민전쟁기 향촌지배층의 동향」, 『1894년 농민전쟁 연구(5)』, 1997, 참조.

2. 1894년 이후 국권회복 : 의병과 자정순국

1) 의병활동

갑신정변 이후 약 10년간, 유교를 지키면서 향촌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던 유생층이 대대적인 무력항쟁으로 돌아선 것은 갑오개혁과 그 과정에서 시행된 단발령과 을미사변 때문이었다. 그들은 의병을 일으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런데 안동지역에서 이런 대응을 주도한 것은 호파였고, 병과는 부분적 혹은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또한 자신들의 학문적 계승, 성격 때문이었다.

이때의 의병운동은 안동에서 먼저 일어났다. 1894년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자, 이를 비판하면서 공주의 유생 서상철이 안동에서 의병을 일으킨 것이었다.⁹⁶⁾ 그러나 안동 지역의 의병도 단발령 후에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단발령 소식이 안동부에 전해지자마자 곧 바로 1895년 11월, 예안 지역의 이만응, 금봉렬, 이만윤 등이 연명한 「예안통문」이 발송되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단발로 인한 유교문명의 금수화에 대한 우려였고, 이를 막기 위해서 의병으로 항쟁하자고 하였다.

생각건대, 사람이 짐승으로 되란 말인가. 천지의 강상이 이미 무너지고 중화 문명이 오랑캐로 되란 말인가. 부모의 遺體도 보전하기 어렵게 되었다. 근래 의복을 찢고 고친 날에 우리들은 비록 피를 토하고 눈물을 삼키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였으나, 權柄의 중요한 자리는 凶賊의 농간이 되고 대궐의 측근은 異類가 핏박하여 宗社가 朝夕으로 위태롭게 되고, 君父는 망측한 지경에 처해 있으니, 널리 참고 말하지 않았다. 오호라! 임진왜란 때 두 능묘성

96) 金祥起, 『朝鮮末 甲午義兵戰爭의 展開와 性格』, 『한국민족운동사』 3, 1989.

중, 중중]를 침범한 원수를 아직 갚지 못했는데 8월의 대변란[을미사변]이 또 일어나 우리 국모를 다시 폐위한 것이 저 놈들의 조종으로 되고, 의복제도를 고쳐 우리 신민에게 입히는 것도 저 놈들 마음대로 하니, 우리나라를 무시할 뿐 아니라 흉악한 짓이 날로 심해져 또한 감히 우리 임금의 머리 모양에 칼을 대어 깎게 하고 나라 안에도 단발령을 내렸다. 오호 원통하도다! 고금 천하에 오늘날 같은 일이 어찌 있으랴. (...) 이 머리털을 한 번 깎으면 선왕의 백성이 모두 오랑캐의 몸이 되고, 鄒魯의 옛 나라가 모두 다 짐승의 지경으로 들어갈 것이다.⁹⁷⁾

라고 하여, 의병을 일으킨 목적을 명확하게 제기하였다. 의병은 의복 제도의 변경, 국모 시해, 단발령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 곧 유교의 문명, 소중화의 금수화에 대한 우려와 이를 막기 위한 항쟁이었다. 특히 안동은 鄒魯之鄉으로 불리고 있었던 점에서 더 그러하였을 것이다.

예안통문을 계기로 연속으로 靑城書院과 鏡光書院의 「靑鏡通文」, 호계서원의 「虎溪通文」 등이 발송되어 거의를 촉구하였다. 유생들은 봉정사, 안동향교 등지에서 사전 모임을 가진 후에 12월 6일에 안동부에서 향회를 개최하였다. 김도화, 김홍락, 류지호 등의 호파와 柳道性, 柳芝榮 등의 병파가 모두 참여하였다. 이들은 봉화 유곡(닭실)의 權世淵을 의병대장으로 추대하였다.⁹⁸⁾

권세연의 의병 부대에는 안동 지역을 대표하는 문중, 학자들이 망라되었다. 부장으로 추천된 곽중석(이진상의 제자)는 처음부터 불참하기는

97) 「禮安通文」 을미 11월 29일(柳光烈 編, 『抗日宣言·倡義文集』, 서문당, 1975). 이를 주도한 李晩膺(1829~1905)은 영남만인소의 소두였던 이만손의 친동생이었다.

98) 김희곤, 『안동 사람들의 항일투쟁』, 지식산업사, 2007, 84~98쪽. 의병장으로 추대된 김홍락은 학봉 김성일의 위패[大廟]를 모시고 있다는 점에서, 또 류도성은 병석에 있는 백세 노모 때문에 그 자리를 사양하였다고 한다.

하였지만, 사실상 영남 북부지역의 유림을 대표하는 의병진이었다. 의병 부대의 지도급 인사로 임명된 사람의 대부분은 호파의 유생들이었다. 참여자 46명 가운데 하회 출신으로는 柳膺睦(외방장) 정도였다. 권세연 의병부대로 체제를 정비할 때(1896. 1. 24) 柳蘭榮(하회)이 도총이 되었다. 이 의병에 柳道性(하회 북촌, 1823~1910)이 김홍락과 함께 지휘장으로, 류난영은 여전히 도총으로 참여하였다.⁹⁹⁾

류응목은 철저한 척사론에 입각하여, 정학과 이단을 철저히 구분하고, 조선을 華夷와 邪正의 구분이 명확한 小中華로 자부하면서,¹⁰⁰⁾ 正學을 높이고 正道를 행하여 이단을 물리쳐 邪說을 그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¹⁰¹⁾ 그는 안동의진의 외방장으로 격문을 발표하였다. 궁궐의 문을 열고 亂賊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명을 속이고 강제적으로 부모의 遺髮을 훼손시켜 우리를 귀신과 犬羊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슬프다, 우리 靑丘의 儀文과 冠裳이 모두 이적 금수로 변했으며, 발호한 十賊이 國權을 농단하고, 도망했던 四凶이 임금을 위협하니 어찌 이를 참을 수 있으랴”라고 하였다.¹⁰²⁾

안동의 의병부대에는 대개 각 문중의 대표자가 참여하였다. 따라서 의병부대를 유지하기 위한 군자금도 안동 일대 문중, 향교에 배부하여 기부하게 하였다. 이때 모두 2만 냥을 모으기로 하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은 1천 냥을 하회 류씨와 수곡의 전주 유씨, 유곡 안동 권씨에게 각각 부과하였다. 동시에 향교에 600냥, 호계서원에 800냥, 병산서원에 400냥 등을

99) 김희곤, 위의 책, 97쪽 ; 110쪽 ; 114쪽.

100) 『鶴山文集』 권5, 「正學異端辨」(一, 350~352쪽).

101) 『鶴山文集』 권5, 「布論斥邪文」(一, 372~373쪽).

102) 『鶴山文集』 권5, 「檄列邑文」(一, 375쪽).

배부하였다.¹⁰³⁾

김도화 의병부대는 서상렬 의병과 연합하여 활동하였다. 영남 북부 지역 8읍의 의병이 2월 9일 예천에 집결하여, (1) 역적과 당 짓지 말 것, (2) 중화의 제도를 바꾸지 말 것, (3) 죽고 사는 것에 마음을 바꾸지 말 것, (4) 딴 생각을 갖고 사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5) 적을 구경하기만 하고 진격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 것 등을 약속하였으며, “춘추대의를 밝히고 인수의 큰 구별을 판단하여 온 누리를 깨끗이 쓸어 내고 왕실을 굳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도화 부대는 태봉전투, 봉정사 전투 등에서 패배하였다. 김도화는 의병진의 재정비하면서 지방의 사립들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하회 류씨 문중에는 「與河回柳氏門中」이라는 글을 지어, 안동이 두 文忠公(류성룡, 김성일)의 忠義의 정신이 계승되는 곳임을 강조하고, 봉정사 패산 이후 문을 닫고 의병과의 관계를 끊고 있는 것은 수치라고 하면서, 군자의 忠厚의 도리와 大義 정신을 들어 지원할 것을 호소하였다.¹⁰⁴⁾ 4월 들어 정부의 선유사(장석룡 등)가 고종의 효유문을 가지고 와서 의병 해산을 종용하자 6월 초에 안동 의진도 해산하였다.

한편, 상주 우천의 柳寅睦(유후조의 조카)은 지례, 예안 현감, 양산군수 역임하였는데, 을미사변 후에 사임하고 바로 김천 知禮 三道峰(경북, 충북, 전북 경계의 산), 밑에 들어가 의병에 참여하였다. 특히 이 지역의 김산의진(대장 이기찬)에는 허전, 장복추의 문인과 더불어 류주목의 문인들이 많았다. 류인목은 金山의진의 도집례로 활동하였다.¹⁰⁵⁾

103) 김상기, 「1895~1896년 安東義兵의 思想的 淵源과 抗日鬪爭」, 『史學志』31, 1998, 335~337쪽; 김명자, 앞의 글, 2009, 154쪽, 263쪽.

104) 『拓菴別集』 권1.

105) 『경북독립운동사(I)』, 경상북도, 2012, 246~267쪽 참조.

2) 自靖 殉國

유교문명의 금수화라는 위기에 처한 유생층은 유교의 도를 지키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유인석은 이를 舉義掃清, 去之守舊, 그리고 致命遂志(혹은 自靖遂志) 세 형태로 제기하였고, 그 어느 것이나 斯道를 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정당하다고 하였다.¹⁰⁶⁾ 앞서 본 의병항쟁은 거의소청의 방안으로, 유인석도 처음에는 거의소청을, 후에는 거지수구 등을 때에 따라 선택하였다.

안동의 유생 가운데 몇 명은 나라가 일제에 의해 망하자 이를 분하게 여겨 자정순국, 곧 자결하였다.¹⁰⁷⁾ 李晚燾, 李中彦, 李命宇, 權龍河, 金舜欽, 김택진, 이현섭, 그리고 하회의 柳道發(晦隱, 1832~1910) 등이었다.

류도발은 이만도와 이면주(봉화)의 순국 소식을 듣고, 자신도 그 뒤를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世子侍講院副率 柳進徽의 아들로,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지방관으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지방 3곳에서 생활하였다. 그는 당시 조정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편의와 당론에 따라서만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당시 외침 앞에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서는 밖으로 교린의 도를 강구하고, 안으로 자강의 대책을 세워야 하며, 변방을 수비하고 민력을 길러 국가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외국과 수교를 하게 되면 이는 “무기를 놓고 문호를 열어 저들을 맞이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일본의 노예나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¹⁰⁸⁾

106) 『毅菴集』 권27, 「雜錄」(上, 633~634쪽)

107) 김희곤, 앞의 책, 2007, 223~235쪽.

108) 『晦隱遺稿』 권1, 「時務便私論」

류도발은 여러 번 이사를 하였는데, 나중에는 군위군 비안의 덕암리에 이사하자 스스로 ‘梅隱’이라 자칭하였다. 그러던 중 1910년 8월,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안동 하회의 옛집으로 돌아왔다. 이때 객사에 있던 殿牌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종묘사직이 망했고, 전폐가 훼손되었다. 여러 왕들의 어짐과 두터운 은택이 이같이 징험이 없으니, 천리를 진실로 알 수 없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병산서원의 사당문을 보통 때처럼 열고 닫는 것도 미안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내 나이 80에 나라가 무너지고 임금이 망하여 장차 남의 나라 포로가 되게 되었으니 그 욕됨이 심하다. 더구나 세신의 후손임에 있어서라!”라고 하였다.¹⁰⁹⁾

그리고는 먼저 순국한 이만도, 이면주의 뒤를 잇기로 하였다. 9월 28일, 하회에 가서 조상 묘에 두루 절하고 하직 인사를 하였다. 그는 친척들을 비롯하여 자손·친지들에게 작별을 알린 뒤, 집에 돌아와 마당에 자리를 마련하고 북쪽을 향하여 네 번 절한 다음 음식을 끊었다. 아들 류신영이¹¹⁰⁾ “선비가 의에 처하는 것이 대부와 같지 않은데, 왜 하필 이와 같이 하십니까”라고 만류하자, 류도발은

나는 우리 할아버지[류성룡]의 후손으로, 선군[류진휘]를 모시고 세 고을의 녹을 먹었으니, 어찌 관직이 몸에 없다고 말을 하겠나. 내 뜻이 이미 정해졌으니, 더 이상 긴 말을 하지 말라.¹¹¹⁾

109) 『梅隱遺稿』 권5, 부록, 「家狀」.

110) 류신영도 1919년, 고종의 붕어 후 자정 순국하였다.

111) 『梅隱霞隱兩代殉國日錄』.

라고 하였다.

류도발의 자정 순국은 서애의 학문을 가학으로 계승하면서, 또한 재야의 유생과 다른 '세신의 후예'라는 자세를 그대로 보인 태도였다. 곧 유교의 '도' 문체이면서, 그 보다는 왕조에 대한 '충'의 문체를 더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는 단식한지 17일 만인 1910년 10월 26일 순국하였다.

V. 맺음말

이상으로 19세기 후반, 안동 하회와 상주 우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柳仲郢 - 柳雲龍 · 柳成龍 가문 후예들의 학문적 특징과 처신, 척사운동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 문중은 조선후기 영남을 대표하는 가문이었다. 영남의 남인들이 중앙 정계에서 제외 되었지만, 하회 문중에서는 꾸준히 과거나 음사를 통하여 관료를 배출하였고, 마침내 류성룡 이후 근 3백년 만에 다시 류후조가 재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하회의 屏儒, 柳氏들은 퇴계학통에 속하면서 입암 - 겸암 · 서애에 의해 형성된 학풍이 이후 대를 거르지 않고 문중의 학자들에 의해 家學으로 계승되었다. 가학으로 계승된 그들의 학문은 주로 현실에서의 도덕적 실천에 힘을 기울였다. 성리 철학은 이미 퇴계에 의해 정리되었으므로, 별도의 연구를 하기 보다는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학문을 중시하였다. 학문의 근본이 『小學』에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일상적인 행동에서의 禮論과 心論을 연구하였다. 또한 이런 현실적인 학문 자세는 그들의 처신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줄곧 중앙의 정계에 진출하여 활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신의 후예’라는 생각을 계속 이어갔다. 이는 다른 재야의 선비와 행동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드디어 고종 초기, 대원군의 정치와 연결되어 류후조가 또 다시 재상(좌의정)에 오르게 되었다.

하회 문중은 안동의 유림 속에서 퇴계의 학통 문제를 둘러싸고는 학봉 김성일의 후예들과 대립하였다. 곧 병산서원과 호계서원의 대립, 屏虎是非였다. 이 대립은 안동, 예안, 상주, 영주 등 영남 북부 지역의 유림계를 양분하였고, 이들 유생들의 처신, 현실 대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19세기 후반 전개된 모든 운동과 대응에 병과는 항상 호계서원(호파)과는 다른 자세를 보였다. 병유들은 대원군 봉환 상소에는 소수가 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이끌었으나, 서원철폐 반대 상소운동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모두 대원군과의 연관 때문이었다.

한편 개항 이후 조선사회는 외세의 침략으로 식민지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서양이나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이율배반적으로 부분적이라도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1880년대 이후 조선정부는 서양과의 통교를 확대하고, 서양의 기술을 수용하여 부국강병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재야의 유생들은 이를 반대하고 서양을 배척하는 척사론을 강화하였다. 외세의 침략에서 유교의 도를 지키고, 동시에 나라를 지키자는 것이었다. 1876년 개항을 반대하고, 1881년 『조선책략』을 반대한 상소운동, 그리고 단발령 이후의 의병운동도 모두 이런 척사론을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권과 유교를 위해 자정 순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한국지배는 점차 확고해져 갔다. 이런 시세의 변화 속에서 보수적 유생층도 조금씩 변하기 시

작하였다.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서양을 외교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도 하였고, 혹은 서양 기술문명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급기야 종래의 척사론적인 사고를 벗어나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계몽운동, 교육운동으로 노선을 전환하는 부류도 나타났다. 이런 경우 대개 유교의 폐단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안동지역에서도 李相龍, 柳寅植 등, 호파의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학문적 전통을 스스로 부정하고 대한협회, 협동학교 등을 통하여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하회의 병유들은 이러한 국제 질서의 변동과 사회 변화, 국망의 위기에 대하여 호유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의병운동에 참여하고, 혹은 자정순국하기도 하였지만, 『조선책략』 반대의 척사상소운동에서도 또 의병운동에서도 그러하였다. 게다가 계몽운동으로 노선을 전환하는 경우도 없었다. 개인의 도덕적 실천을 중시하던 가학과 세신의 후손이라는 처신의 자세로 인하여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 표명이나 집단적인 행동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나라가 망한 식민지배 현실을 민족 문제의 틀로 인식하고, 대응하게 되는 것은 1920년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기다려야 하였다.

【참고문헌】

1. 관찬 자료

『承政院日記』, 『日省錄』, 『高宗實錄』

2. 문집류

- 權相翊, 『省齋集』
金道和, 『拓菴集』, 『拓菴續集』, 『拓菴別集』
柳道發, 『晦隱遺稿』
柳道洙, 『閩山集』, 『閩山遺稿』, 『閩山別集』
柳膺陸, 『鶴山文集』
柳嘯陸, 『溪堂集』
柳軫, 『修巖集』
柳厚祚, 『洛坡先生文集』
朴周大, 『羅巖隨錄』, 국사편찬위원회, 1980.
李晚燾, 『響山集』
李震相, 『寒洲集』
許元枳, 『三元堂集』
黃玿, 『梅泉野錄』, 국사편찬위원회 편, 1955.

3. 기타 자료

- 『東學亂記錄(下)』, 국사편찬위원회, 1971.
柳光烈 編, 『抗日宣言·倡義文集』, 서문당, 1975
林基中 編, 『燕行錄全集』 75,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衛正斥邪疏草』(『慶尙史學』 10, 199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2007.

4. 연구논저

- 권오영, 『조선 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김명자,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9.
김병우, 『대원군의 통치정책』, 해안, 2006.
김상기, 「朝鮮末 甲午義兵戰爭의 展開와 性格」, 『한국민족운동사』 3, 1989.
김상기, 「1895~1896년 安東義兵의 思想的 淵源과 抗日鬪爭」, 『史學志』 31, 1998

- 김희곤, 『안동 사람들의 항일투쟁』, 지식산업사, 2007.
- 류시찬 編, 『愚川四百年』, 豊山柳氏愚川門中, 2010.
- 신영우, 「甲午農民戰爭과 嶺南 保守勢力의 對應」, 연세대 박사논문, 1991.
-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엮음, 『경북독립운동사(Ⅰ)』, 경상북도, 2012.
-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엮음, 『경북독립운동사(Ⅱ)』, 경상북도, 2012.
- 홍재휴, 『北行歌 研究』, 효성여대출판부, 1991.
- 강문식, 「溪堂 柳疇睦의 교육활동」, 『退溪學과 儒敎文化』 50, 2012.
- 금장태, 1985. 「韓溪 李承熙의 生涯와 思想(Ⅰ)」, 『大東文化研究』 19.
- 김도형, 「개항 이후 보수유립의 정치사상적 동향」, 『1894년 농민전쟁연구(3)』, 역사비평사, 1993.
- 김도형, 「寒洲學派의 形成과 現實認識」, 『大東文化研究』 38, 2001.
- 김용섭, 「哲宗朝의 應旨三政疏와 三政釐整策」, 『韓國近代農業史研究[Ⅰ]』, 新訂增補版, 지식산업사, 2004.
- 김용섭, 「韓末 高宗朝의 土地改革論」, 『韓國近代農業史研究[Ⅱ]』, 신정정보관, 지식산업사, 2004.
- 김성운, 「안동 남인의 정치적 일상과 지역정치 동향 - 철종대 金洙根서원 건립과 고종대 屏虎保合을 중심으로 -」, 『영남학』 15, 2009.
- 백도근, 「擬上六條疏를 통해 본 溪堂 柳疇睦 선생의 사상」, 『尙州文化研究』 5, 1995.
- 설석규, 「조선시대 嶺南儒生의 公論形成과 柳道洙의 萬人疏」, 『退溪學과 韓國文化』 44, 2009.
- 송병기, 「辛巳斥邪運動 研究」, 『史學研究』 37, 1983.
- 우인수, 「溪堂 柳疇睦과 閩山 柳道洙의 학통과 그 역사적 위상」, 『退溪學과 韓國文化』 44, 2009.
- 이수건, 「17, 18世紀 安東地方 儒林의 政治社會的 動向」, 『大丘史學』 30, 1986.
- 이상호, 「정재학과 성리학의 지역적 전개양상과 사상적 특성」, 『국학연구』 15, 2009.
- 이수환, 「대원군의 서원훼철 반대와 영남 유소」, 『교남사학』 6, 영남대, 1994.
- 이형성, 「江阜 柳尋春의 生涯와 思想」, 『退溪學과 儒敎文化』 50, 2012.
- 정만조, 「英祖 14년의 안동 金尙憲書院 建立 是非」, 『韓國學研究』 1, 동덕여대, 1982.

- 정병국, 「此山 柳寅睦의 北行歌 研究」, 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정진영, 「1894년 농민전쟁기 향촌지배층의 동향」, 『1894년 농민전쟁 연구(5)』, 1997.
- 정진영, 「19세기 후반 영남유림의 정치적 동향 : 만인소를 중심으로」, 『한말 영남 유학계의 동향』,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1998.
- 조성윤, 「개항 직후 대원군파의 쿠데타 시도」, 양상현 편, 『한국근대정치사연구』, 사계절, 1985.
- 최승희, 「書院(儒林)勢力的 東學 排斥運動 小考」, 『韓祐勳停年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1.
- 한상우, 「조선후기 鄉戰을 통해본 양반층의 親族, 婚姻 - 안동의 屏虎是非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81, 2013.
- 홍원식, 「서애학과와 계당 유주목의 성리설」, 『退溪學과 韓國文化』 44, 2009.

Abstract

On the Thoughts and Activities of Poongsan Ryu Families
(Byeongyu, 屏儒) in the Late 19th Century

Kim, Do-Hyung

In the late Chosun period, Poongsan Ryu were one of the most prestigious families of Yeongnam province. As the descendants of Ryu Woon-ryong(柳雲龍, 1539~1601) and Ryu Sung-ryong(柳成龍, 1542~1607), their academic genealogy was formed by passing down family scholarship based on Toegye(李滉, 1501~1570)'s scholastic mantle. In spite of *Noron*(Old Doctrine)'s political hindrance, a sizable number of Poongsan Ryu family served as government officials. Having *Yeonguijeong*(Chief State Councillor) Ryu Sung-ryong as an ancestor, Poongsan Ryu were proud to be hereditary royal subjects; and this influenced on their family scholarship, governance theory and political decision. Poongsan Ryu developed scholarship that morally and practically carries out Toegye's teachings, and also focused on assisting King to study Sage Learning and to become a Sage king.

In the late 19th century, Taewongun appointed Ryu Hoojo, a member of *Namin*(Southerners), as *Jwauijeong*(Second State councillor) in consequence of the policy of balancing the power of Andong Kim and Pungyang Cho clans. This led Yeongnam *Namin*, including Poongsan Ryu to politically support Taewongun's policies. Whereas, Yeongnam *Namin* we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schools; Seoae school(Poongsan Ryu, or *Byeongyu*) and Hakbong school(*Hoyu*). Poongsan Ryu and *Hoyu* disagreed upon certain issues according to their academic affiliation. While Poongsan Ryu tepidly opposed to the removal of *sowon*, they eagerly participated in making petition to bring back Taewongun.

Moreover Poongsan Ryu did not completely reject the government policy of modernization even while they maintained the position of 'Reject Heterodoxy' (*chuksa*). Also, they were not very enthusiastic about participating in petitions against 『*Chosun Chaengnyak*』 or the Righteous army's movements. Nor did they convert to the Enlightenment movement, while some of *Namin* did. The main factors that influenced their political behavior were the family scholarship which regarded individual's moral practice very highly, and their consciousness as the hereditary royal subjects; because of these factors, Poongsan Ryu could not help but be cautious about expressing ideas or taking collective action against the government.

Key Word

Poongsan Ryu, Ryu Sung-ryong, Ryu Hoo-jo, The Lineage of Saesin, Byeongho dispute, Byeongyu

▪ 논문투고일 : 2014.6.29. 심사완료일 : 2014.8.12. 게재결정일 : 2014.8.12.